| KEI | 2002 | WO-07 |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02.11

구 도 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2002/WO-07
정책보고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02.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서 언

청소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이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경쟁과 같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받고 있지만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사회의 중요 활동에 참여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청소년 참여활동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이러한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연구원은 이 연구에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의의와 실태를 연구하고, 청소년의 환경권 의식과 참여활동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기업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부분에서 해야 할 행동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환경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계획과 행정체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지원제도 및 포상제도의 수립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 연구가 앞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드는 데 주인으로서 참여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맡아 수행해 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도완 박사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김정주 박사, 임지연 연구원께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문을 해 주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석진 실장님, 경희대 박병권 교수님,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 김재석 사무관님, 유네스크 한국위원회 전성민 팀장님, 환경운동연합 주선희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2002년 11월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院長 尹 瑞 成

韓國靑少年開發院
院長 權 彛鐘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Ⅱ장에서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환경문제의 주된 피해자이자 사회발전의 잠재적 파트너이며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환경권과 참여활동의 중요성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정부의 환경교육 및 참여활동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참여활동 사례를 선진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참여활동이 시작된 시기도 늦고, 조직적인 활동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선진외국 사례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의사결정을 변화시켜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성공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장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 참여활동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제8차 환경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 13개 중·고등학교 학생 1,560명을 대상으로 했다. 청소년들은 조사대상의 68.3%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표명해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환경교육이나 환경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해 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환경권에 대한 의식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환경과목, 사회환경교육, 환경관련 자원봉사 등의 경험을 해 본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Ⅴ장에서는 청소년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높으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활동에 대해서는 정책적

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교육은 전문가, 인센티브, 네트워, 예산 지원, 평가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환경단체들이 수행하는 사회환경교육도 종합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전문가, 공간, 예산 등 자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인 주체인 청소년이 자신들과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해 환경보전활동과 그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학교 환경교육 부문에서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활동 대폭 확대, 둘째 사회 환경교육을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발전 중심으로 개선, 마지막으로 기업의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원 확대와 같은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안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대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이 환경과 사회발전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학교,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7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문제 중심의 참여활동
(2) 생태 중심의 참여활동
(3) 생활 중심의 참여활동
(4)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활동
(5) 민주주의 체험의 참여활동
(6) 사이버 참여활동
(7) 소비자 주권 참여활동

마지막으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다음

과 같다. 첫째로 중앙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종합대책'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 환경부

· 기존에 추진중인 환경보전 시범학교, 체험환경교육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를 확대 발전시켜 청소년들 사이의 국제적인 참여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도 전문가 육성

(2) 문화관광부

· 주5일 근무제 도입 대비, 주말농장,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 문화 · 체육 · 관광 연계프로그램에 생태, 환경개념 도입하여 생태문화 체험활동이 되도록 유도

(3) 교육부

· 학교교육 속에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
· 자원봉사활동, CA활동, 야외학습, 재량학습 등 학교교육에서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참여활동 지도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포상제도와 지원제도 도입

다음으로 각 부처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에 적합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지역 청소년 환경보전 협의회' 구성 및 지원
(2) '지방의제 21' 전국 협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조직 구성
(3)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네트웍 구성

(4) 사이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5) 사이버 환경의회 구성

(6)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강화

(7) 사회봉사활동을 환경보전 활동과 연계 강화

(8)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도 전문가 양성

(9)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서 청소년 위원회 설립

지역의 환경보전과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에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는 재량활동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환경동아리 등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맞는 독창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역사회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환경청 등과 파트너십을 만들어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활동과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연계시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함께 기여하는 경험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환경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환경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학교, 청소년 동아리와의 다양한 참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청소년 환경협의회를 만들고 주기적인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공개 프로그램, 오염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차 례

서 언

요 약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방법과 내용 ········· 2

Ⅱ.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의의 ········· 3

1.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 ········· 3
2.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중요성 ········· 5
3. 청소년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의 국제적 흐름 ········· 6
4. 청소년 환경권의 개념 ········· 9

Ⅲ.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현황 ········· 14

1. 정부의 환경교육 및 참여활동 지원 ········· 14
2. 우리나라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사례 ········· 18
3. 외국의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 사례 ········· 30
4. 국내외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 사례 비교분석 ········· 45

Ⅳ. 청소년의 환경보전 의식과 참여실태 ········· 52

1. 조사방법 및 절차 ········· 52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4
3. 청소년의 환경보전 인식과 실천 ········· 55
4.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실태 ········· 76
5. 청소년의 환경권에 관한 의식 ········· 90
6.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 101

7.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03

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 107

1. 청소년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의 문제점 ········ 107
2.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발전 방향 ········ 110

Ⅵ. 요약 및 제언 ········ 118

1. 요약 ········ 118
2. 정책제언 ········ 11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 122

참고문헌 ········ 123

<부록1>설문지 ········ 128

<부록2>심층면접 자료 ········ 137

<부록3>미래세대 환경권 관련자료 ········ 154

표 차례

<표 II-1>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유형 ······ 4
<표 II-2>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 ······ 15
<표 II-3>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현황 ······ 16
<표 II-4>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현황(2002년) ······ 17
<표 II-5>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현황 ······ 18
<표 III-1> 국내외 청소년 환경참여 활동 비교 ······ 48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4
<표 IV-2>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 56
<표 IV-3> 대기오염의 심각성 인식 ······ 57
<표 IV-4> 수질오염(지하수 오염 포함)의 심각성 인식 ······ 58
<표 IV-5> (농약 등에 의한)토양오염의 심각성 인식 ······ 59
<표 IV-6> 소음 및 진동의 심각성 인식 ······ 60
<표 IV-7> 악취의 심각성 인식 ······ 61
<표 IV-8>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인식 ······ 62
<표 IV-9> 생활쓰레기 처리의 심각성 인식 ······ 63
<표 IV-10> 산업폐기물·유독성 화학물질 처리의 심각성 인식 ······ 64
<표 IV-11> 해양오염의 심각성 인식 ······ 65
<표 IV-12>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 인식 ······ 66
<표 IV-13> 식품오염(환경호르몬 등)의 심각성 인식 ······ 67
<표 IV-14> 환경문제 전반의 심각성 인식 ······ 68
<표 IV-15> 일회용품 안쓰기 ······ 69
<표 IV-16>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70
<표 IV-17>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 ······ 71
<표 IV-18> 세탁, 설거지, 목욕시 저공해 세제 이용 ······ 72
<표 IV-19> 수돗물 아껴쓰기 ······ 73

<표 Ⅳ-20> 승용차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 74
<표 Ⅳ-21> 자연환경 훼손 방지 ············ 75
<표 Ⅳ-22> 청소년의 환경권 관련 문항의 요인분석 ············ 99
<표 Ⅳ-23> 청소년의 환경권 의식 ············ 100
<표 Ⅳ-24> 청소년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원인 ············ 101
<표 Ⅳ-25>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년 참여방안 ············ 102

그림 차례

<그림 Ⅳ-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비교 ········ 55
<그림 Ⅳ-2> 환경과목 이수 ········ 76
<그림 Ⅳ-3>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 관련 수업 ········ 77
<그림 Ⅳ-4>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 전문가 특별강의 ········ 78
<그림 Ⅳ-5> 동아리나 CA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 79
<그림 Ⅳ-6> 수련이나 단체활동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 80
<그림 Ⅳ-7>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 ········ 81
<그림 Ⅳ-8> 환경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 ········ 82
<그림 Ⅳ-9>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참여시 부분적으로 환경문제 관련 활동 ········ 83
<그림 Ⅳ-10>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 84
<그림 Ⅳ-11> 지역사회기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 85
<그림 Ⅳ-12> 환경운동단체 회원으로 활동 ········ 86
<그림 Ⅳ-13>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보전 활동 ········ 87
<그림 Ⅳ-14>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환경관련 교육 ········ 88
<그림 Ⅳ-15> TV매체 등을 통한 환경관련 간접교육 ········ 89
<그림 Ⅳ-16>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 90
<그림 Ⅳ-17>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중요성 ········ 91
<그림 Ⅳ-18> 환경문제 의사결정이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력 ········ 92
<그림 Ⅳ-19> 환경문제 의사결정시 청소년 의견 반영 ········ 93
<그림 Ⅳ-20> 청소년들의 자연자원 보전 요구에 대한 권리 ········ 94
<그림 Ⅳ-21> 청소년시기의 환경보전 참여와 결과 ········ 95
<그림 Ⅳ-22>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책임 ········ 96
<그림 Ⅳ-23>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권리 ········ 97
<그림 Ⅳ-24> 청소년들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가치 ········ 98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악화와 같은 지구적인 환경위기는 모든 인류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피해는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런던 스모그 등 환경재난에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환경문제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앞선 세대의 행위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환경문제의 불가역성과 누적성, 그리고 장기적인 특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현세대의 구성원이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의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참여활동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확산과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확립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과 이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지금까지 청소년과 관련한 환경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환경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았다. 현 교육제도 아래에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은 크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중심의 정책과 연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

---

1)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재난에 따른 피해도 저개발국은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때문에 선진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본다.

은 환경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스스로 미래의 환경을 보전하고 창출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 글은 기존의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과 연구 등을 검토하되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문헌조사, 질문지 조사 분석, 심층면접 등의 연구방법을 이용했다. 먼저 청소년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에 관한 기존 문헌을 조사연구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환경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질문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 참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교사, 전문가 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심층면접조사 자료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내와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사례를 검토해 본다. 4장에서는 국내 청소년들의 환경에 관한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성인들의 의식과 비교 분석한다. 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6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II.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의의

1.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2]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탐구하며 그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주된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청소년이 주로 교육의 대상이 되어 환경관련 지식, 감수성, 태도, 기능 등을 전수받는 데 비해 후자는 청소년이 직접 환경문제의 확인(identification), 연구(research), 해결(solution) 등의 동적인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물론 참여활동에도 교사 등 지도자의 역할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특성을 갖는다. 청소년들이 모피 반대운동을 벌이거나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미래세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환경 동아리를 통한 쓰레기 줍기 운동, 생태 탐구활동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 <표 Ⅱ-1>로 정리할 수 있다. 이 표는 환경교육과 환경운동, 그리고 형식적/비형식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먼저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은 그 특성상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환경교육은 피교육자가 환경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환경운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자원을 동원하여 제도와 가치체계를 바꾸기 위해 집합적으로 행동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 유형의 행위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밖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주어진 제도의 재생산을 위해 기능하는 특성을

2)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청년(youths)은 15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연령세대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세부터 24세 이르는 세대를 청소년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만 13세부터 만 18세에 이르는 연령세대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겠다. 이 연령대에는 실업계 고등학생, 미취학 청소년 등이 포함되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학생이므로 이 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참여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교육과 교내 환경운동은 체제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개인의 행위양식의 변화와 적응을 지향하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비형식적인 사회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운동은 다양한 이념적 특성을 갖지만,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이념을 지향하고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개혁적인 특성을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다.

<표 II-1>환경보전참여활동의유형

활동형태 / 형식성	환경교육		환경운동
학교(형식적)	학교 환경교육	A	학내 환경운동 C
사회(비형식적)	사회 환경교육	B	사회 환경운동 D

이 표에 따르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환경교육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참여활동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체험환경교육은 교육이면서 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유형 A).

둘째로 환경단체나 비형식적인 환경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체험환경교육, 생태교육과 같은 활동들은 사회환경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환경보전 참여활동이다(유형 B).

셋째로,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 마을지키기, 자연보호, 쓰레기줄이기, 재활용하기와 같은 환경운동을 벌이는 것은 학내 환경운동으로서의 환경보전 참여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유형 C). *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교육기관 밖에서 청소년들이 운동단체를 조직하거나, 환경운동단체에 참여하여 환경운동을 벌이는 활동은 사회 환경운동으로서 환경보전 참여활동이다(유형 D).

우리 나라에서 유형 A와 B는 일선 학교와 환경부의 환경교육 정책 덕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내 환경운동으로서의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입시교

육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 활발하지 않고 쓰레기 줍기 운동과 같은 수동적인 생활환경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환경보전 참여활동으로서 청소년 사회 환경운동은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과 같은 활동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드문 사례만이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의 복지와 미래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환경교육에서의 참여를 넘어서 자발적인 환경운동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 환경교육을 통한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중요성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왜 중요한가? 청소년은 그 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할 피보호자로서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체이자 잠재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함께 갖는다. 전자를 강조할 경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자 환경오염의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후자를 강조할 경우 참여의 소외자로서 평등한 참여권을 갖는 점이 부각된다.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는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청소년은 환경오염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환경문제의 누적성과 불가역성 때문에, 환경오염이 악화될수록 그들의 피해는 현세대보다 더 커질 것이다.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로서 청소년의의 참여를 존중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로 청소년은 살아 있는 미래세대로서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짓는 현재의 일에 대해 탐구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는 데 반해, 성인들의 결정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조(self help)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조건이 되는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와 이해관심을 갖는다.

청소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잠재적 파트너이다. 청소년은 현세대이면서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 위계에 따라 차별 받는 경향도 많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

추어서, 국제적으로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가 청소년의 권리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참여활동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로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와 시간적 근접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들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할 도덕적 의무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자신들과 성인 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넷째로 한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은 그들의 인식을 증진시켜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청소년은 소비의 주체로서 중요하다. 청소년이 환경을 고려하는 녹색소비를 할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3. 청소년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의 국제적 흐름

(1)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1972)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1972)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 선언;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인간은 존엄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자유, 평등 및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원칙 1).”

스톡홀름 회의에서 이와 함께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촉

구했다.

"불우한 계층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함께 성인은 물론 젊은(younger)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은 개인, 기업, 공동체가 환경을 충분히 개선하도록 책임있는 행동과 계몽된 의식을 갖도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원칙 19)."

(2) 베오그라드 국제환경교육회의(1975)

1975년에는 구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국제환경교육회의'가 열려 베오그라드 헌장(The Beograd Charter)이 채택되었다. 이 베오그라드 헌장은 환경교육의 목표, 윤리,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환경교육의 목표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 인식(Awarness): 개인 및 사회집단으로 하여금 전체 환경과 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 지식(Knowledge): 개인 및 사회집단으로 하여금 전체 환경과 그에 관련된 문제 및 인간의 환경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사명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한다.
- 태도(Attitude):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감수성, 환경보호와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의욕을 기르도록 한다.
- 기능(Skills):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 평가(Evaluation Ability): 환경상태의 측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생태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미적 그리고 기타 교육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참여(Participation):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에 관한 책임과 사태의 긴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3) 환경교육에 과한 정부간 회의(트빌리시 회의; 1977)

1977년에는 구소련의 트빌리시(Tbilisi)에서 UNESCO와 UNEP의 공동주관으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환경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도시와 지방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생태학적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심을 조성한다.
-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가치, 태도, 참여, 그리고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 환경에 대한 개인, 집단, 그리고 전체로서의 사회의 새로운 행동양상을 창출한다.

(4)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 위원회(1983) : 『우리 공동의 미래』

1987년 유엔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위원회가 부른트란트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발표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세계 공동의 이념이 되었다. 『우리 공동의 미래』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구 자원과 생태계 수용력의 한계를 인식한 인류가 비로소 현세대의 욕구와 미래세대의 욕구 사이의 균형과 세대간(Inter-generation) 정의(Justice)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유엔회의(리우 회의: 1992)

환경에 관한 미래세대의 권리와 참여의 중요성은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리우 선언에서는 “개발권리는 현재 · 미래세대의 개발과 환경수요를 공평하게 충족시키도록 추진되어야 한다(제3조).”고 명시되었다. 또한 원칙 21에서는 “지

속가능한 발전과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전세계 청소년(youth)의 창의성, 이상, 용기를 결집하여 지구적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정신은 의제 21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제3부 제25장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장으로 정리되었다. 의제 21의 제36장에는 교육, 홍보 및 훈련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쇄신, 공공인식의 증진, 훈련의 촉진에 대해 언급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식 비공식 환경교육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한다. 환경적, 윤리적 인식을 갖고 올바른 가치와 태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치하는 기술과 행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사결정과정에 효율적으로 공공참여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다(36.3)

(6)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2002)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원관리와 같은 포괄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을 채택했다. 이행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방 청소년 협의회(council) 등을 지원하고 이런 조직이 없는 곳에는 설립을 장려한다(이행계획 152조)."

4. 청소년 환경권의 개념

(1) 청소년의 권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적 불완전성 때문에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강조되고 현재 사회의 주체로서의 특성은 높이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현세대의 중심으로서 그들 자신의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은 헌법에 의해 평등하게 복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1항)고 선언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4항)'고 청소년의 복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환경권을 제35조에 명기하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차별 받지 않으며 복지를 누릴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현대 환경위기의 시대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복지권이며, 위기가 심화될수록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의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삶의 질에 대한 권리, 즉 행복추구권과 복지권, 환경권을 갖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 적극적인 자유권은 제한 받고 있다. 선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이와 같이 참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첫째로 실정법 상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준거에 따라 권리의 제한을 받는다. 두번째 기준은 능력 부족 또는 미숙이라는 능력준거인데, 그 적용대상이 바로 아동과 청소년이다(정회욱 외, 2000: 33).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 아동과 달리 지적인 잠재력과 실제적인 판단력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세대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환경문제의 속성상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복지권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환경권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으로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의사결정 과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자문을 제공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복지권에 대한 보장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다.

(2) 미래세대의 권리와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청소년은 미래세대라 보기는 어렵다.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인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미래세대는 아니지만 미래세대와 가장 가까운 세대 가운데 하나이면서 이들에 대한 의무와 함께 성인세대에 대한 권리를 갖는 복합적인 세대라 볼 수 있다.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관계에 대해 논하기 전에 미래세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세대간(inter-generation) 정의와 형평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정치적 보고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부룬트란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욕구 충족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 욕구(needs)의 개념, 특히 일차적인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할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욕구
- 한계의 개념, 즉 기술과 사회조직의 상태가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에 미치는 한계(세계환경발전위원회: 75)

미래세대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류로 정의할 경우, 미래세대는 현세대에 대해 그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구승회(2001: 332-33)는 “가능적, 잠정적 존재로서 미래세대의 도덕적 권리에 대해 일단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미래세대가 현세대에 대해 환경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해서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권리 개념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복합적인 도덕적 의무를 포괄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으로 본다.

한면희(2001)는 미래세대 권리론에 대해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 개념을 검토하면서, 권리 개념의 정의에 따라 권리의 유무가 달라진다고 정리하면서 미래세대가 권리를 갖든 갖지 않든 간에 현세대 인간은 미래세대에게 의무나 책임을 갖는다고 본다. 즉 상대방이 우리에게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유형의 의무가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생태계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 한면희는 인간 아닌 자연이나 자연적 존재가 인간에게 도덕적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보전과 관련해서 적절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에 대한 일정한 의무나 책임을 갖는다고 봄으로써, 도덕공동체의 범위를 인간 세계로만 국한하지 않고 더 넓게 펼친다고 주장한다.

미래세대 논의에 대한 반론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기술낙관론에 바탕을 둔 논증이다. 로버트 구딘에 의하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할 때, 미래세대는 현세대보다 나은 기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이해관심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본다(구승회, 2001: 32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와 환경의 수용력 한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만년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면, 언제 확립될 지 모르는 미래기술에 의존하는 일은 미래세대의 이해관심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의 처리비용만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체 불가능한 경관을 가진 생태계의 파괴나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남용, 복원불가능한 종의 멸종, 회복불가능한 기후 평형체계의 교란과 같은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 경우이다.

다음으로 마틴 골딩(Martin Golding)은 미래세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현세대가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미래세대가 설정한 인간의 삶의 질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듯이 아주 먼 미래에 살게 될 세대들의 욕망과 필요를 알지 못한다(구승회, 2001: 326). 그러나 아주 먼 미래의 세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손의 재생산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자연을 요구할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먼 시간 개념을 갖지 않고 현세대의 2, 3세대 후손만을 생각하더라도 유전자의 존속을 지향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

미래세대에 대해 현세대가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욕구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생태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토론을 필요로 한다. 우선 한계를 가진 지구의 생태학적 수용력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자원의 한계, 오염정화능력의 한계, 인구수용능력의 한계, 소비의 한계에 대한 검토는 기술, 인구, 소비의 함수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검토는 전세계적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인 토론과 민주적 참여를 통해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현 세대는 이러한 토론을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기본이다.

III.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현황

1. 정부의 환경교육 및 참여활동 지원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1980년에 환경청이 생기면서 서서히 이루어졌다. 환경청의 지원 아래 『환경교육에 관한 심포지엄』(1983),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정책연구』(1987) 등이 이루어졌다.

1) 환경과목 현황

학교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82년 고시된 제4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환경교육내용이 교과별로 포함되었다. 1987년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관련 내용이 '국가사회가 강조하는 8대 중점사항'으로서 여러 교과에 포함되었다. 1985년에는 환경청의 지원으로 전국 초·중학교에 환경교육 시범학교가 운영되었다(박태윤 외, 2001: 37).

제6차 교육과정(1992년 고시, 1995년부터 시행)이 시행되면서 초, 중, 고등학교에 환경교과가 독립과목으로 신설되게 되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1995년부터 '환경'을 독립과목으로 개설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102시간 이상으로 하여 제6차 교육과정의 연간34~68시간에 비해 늘어났다. 2002년 3월말 현재 전국 2,770개 중학교 중에서 '환경'을 선택한 학교는 408개교(전체의 14.7%)이다(환경백서 2002).

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도 독립과목인 '환경과학'(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2년부터는 '생태와 환경')과 함께 여러 교과에 걸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1996년부터 독립과목인 '환경과학'을 개설하여 교양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고1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이밖에도 새로이 학교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3월말 현재 전국 1,969개 고등학교 중에서 환경과목을 선

택한 학교는 436개교(전체의 22.1%)이다. <표 II-2>는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수가 전체적으로 2001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2>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

(단위 :개교)

구분	년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학교	2002	408	16	154	10	6	5	15	5	22	9	98	12	5	18	17	12	4
	2001	396	12	155	9	9	6	17	3	15	10	102	10	3	19	17	7	2
고등학교	2002	436	27	19	20	27	19	21	5	35	23	31	35	38	54	38	36	8
	2001	430	22	13	23	17	17	27	5	43	25	34	37	40	58	29	33	7

출처: 『환경백서 2002』

2) 환경보전 시범학교

환경부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 1985년부터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년 단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에서는 교과서의 환경관련내용 등을 정리・보완하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환경체험학습활동과 환경보전 학예행사 등을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현재까지 학교급별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된 현황은 <표 II-3>과 같다. 환경부는 2002년 현재, 1개교당 연간 400만원에서 5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환경도서, 팜플렛, VTR 테이프 등의 자료와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환경백서』 2002).

<표 Ⅱ-3>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현황

(단위 : 개교)

연 차 별	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115	17	42	43	13
제1차～제8차 ('85～2000)	89	11	34	36	8
제9차 (2001～2002)	26	6	8	7	5

3) 체험환경교육

환경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체험을 통해 환경보전을 정서적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일선학교,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교육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환경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프로그램을 공개모집하여 심사선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국고보조금)을 해주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매년 지원기관수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과학적・실험적 탐구학습, 토론학습, 환경현장견학 및 조사학습, 생태기행 및 체험학습, 교육･홍보, 놀이 학습, 세미나, 토론회 등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교육은 1,000만원이내, 특별교육은 해당사업 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2년 3월 마감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269개 기관･단체에서 15억 5천여만원을 지원 신청하여 최종심사를 거쳐 총 205개 기관에 8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II-4>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현황(2002년)

○ 기관별 지원현황

계(개소)	학교	민간단체	자치단체	기타
205	113	72	3	17

○ 지역별 지원현황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	대전 충남·북	광주,전남, 제주	강원	대구, 경북	전북
지원기관	205	36	23	43	50	20	16	17
지원금액 (천원)	817,964	167,140	86,691	161,008	185,865	76,000	74,200	67,060

4) ‘청소년 환경교실’

청소년 환경교실’은 이론중심의 학교환경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들이자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탐사, 견학, 환경관련 실험 · 실습, 환경놀이 등 현장중심의 실천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정서를 고취시키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초 · 중학교의 특별활동시간 및 재량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 지도자가 일일교사로 참여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1999년 6월에 처음 실시한 ‘청소년 환경교실’은 1999년에 46개교, 2000년에 126개교, 2001년에는 184개교를 운영하였다.

<표Ⅱ-5>청소년 환경교실 운영현황

○ 강의분야별 강사구성 내용

분야별	계	생태탐구	하천조사	토론	환경놀이	실험·실습
인원	62	25	12	15	8	2

출처:『환경백서 2001』

2. 우리나라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사례

1) 청소년 동아리 중심의 활동사례

(1) 푸른 소리

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모임 푸른소리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주위의 친구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한다.'는 푸른 소리 회원의 선서 첫 항목이다. 회원 모두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의 환경보호 동참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1994년에 만들었다. 현재 9기까지 있으며 회원은 2백 명 정도이다.

푸른소리의 활동은 매우 다양한데, 새만금 간척 사업과 모피 옷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4월22일 '지구의 날'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도봉산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과 같은 활동과 서울을 떠나 새만금, 영광 핵발전소, 지리산등을 견학하기도 하고, 이런 캠페인과 더불어 토론이나 환경파괴지역, 핵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했다.

푸른소리의 주요활동은 생활 속의 작은 환경문제에서부터 사회의 큰 환경이슈를 가지고 캠페인, 성명서 발표, 작은 토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은 동물의 생명권 존중 및 인간의 사치심을 없애기 위해 모피반대캠페인을 벌이고, 새만금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소년환경운동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외에도

작은 퍼포먼스, 다른 청소년환경단체와의 미래환경권에 대한 토론,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공부,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캠페인, 분리수거캠페인, 한강의 물줄기를 찾아가는 체험학습, 도시 속 환경공원체험 등 다양한 체험, 토론, 공부를 통해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임 부회장 김지완(대원외고 2년)양은 "환경보호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모임에 참여하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다. 청소년들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른소리는 먼저 교육을 우선시하여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환경을 위해서 어떤 직접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토론도 하고 직접 캠페인을 펼치기도 한다.

푸른소리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미래세대 환경권 학습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고2학년인 한 회원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들만큼 완벽하게 환경참여활동을 할 수 없어 여러모로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의욕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환경관련활동을 해오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늘고 사회적 환경문제에 참여해 해결책을 강구해 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확은 내가 하는 일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이다. 단순히 환경보존을 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나 사회와 미래에 좋은 일이라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 활동 소감을 소개하였다.

푸른소리에 참여하는 고교생 중심 청소년들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캠페인활동 허가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 지원, 특별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참여시간 확보, 학교에서 인정시스템 마련, 청소년 환경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의 물적·인적토대와 지원시스템, 청소년과 연계하려는 성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2) 그린스쿨

그린스쿨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가 2000년 환경부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수행단체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환경기자단의 홈페이지이다.

청소년 사이버 환경기자단은 전국에서 선발된 50여명의 청소년들과 10여명의 지도교

사로 운영되며, 청소년의 입장에서 표현되는 글과 사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청소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환경기자단"을 창립하여 환경에 관한 막연한 관심과 의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지식 등을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해 기사화하고, 인터넷 · PC통신 등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른 청소년들의 의식변화를 모색하고, 환경보전 의식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다음세대의 주인공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있다. 인원은 초등학생이 30여명정도이고, 중학생이 25명 정도이다.

이 활동은 1999년 환경부의 지원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으나, 2000년부터는 지속적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린스쿨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사이버 환경기자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
- 단체교육 및 활동내용: PC통신 및 인터넷활용 교육/환경관련 프로그램 모니터링/환경기자교육/NIE 교육
- 단체취재 활동내용: 폐기물 재활용공장 방문 및 견학/양재시민의숲, 양재천 활용도조사 및 캠페인활동
- 환경기자단 연수활동: 환경보전활동, 자연체험활동, 농촌봉사활동 등
- 개인기사 작성: 본인의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일어난 환경관련 소식이나 자신의 환경 이야기, 학교에서 공부한 환경이야기 등을 기사로 작성하여 협회로 이메일 전송하거나, 직접 홈페이지에 작성
-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운영이 가능한 희망자에 한하여 직접 홈페이지 운영 가능

그린스쿨의 활동과정에서 정부예산과 지원중단으로 활동의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청소년 우수 환경프로그램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3) 녹색소년단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은 1994년 10월 12일에 발족되고 동아일보가 동참하여 '그린 스카우트(현재는 녹색소년단)'라는 이름으로 창립했다.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은 삶에서의 가치관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린훼밀리는 가족 단위뿐 아니라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녹색가족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지구 환경을 다시 푸르게 만들었을 때 이 단체는 그 사회를 "그린 소사이어티"라고 할 것이라고 말한다.

녹색소년단이 지향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며 생활 속에서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다. 활동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다음과 같이 몇 개 활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체험학습・문화 활동이다. 체험학습은 갯벌생태기행, 철새기행, 들꽃기행, 물고기 기행, 곤충기행, 하천탐사기행 등으로 구성되며, 문화활동으로는 환경글짓기, 그림 그리기, 환경사진전시회, 환경 그림전시회 등이 있다.

둘째, 캠페인 활동이다. 야구장 정화 캠페인, 대기오염 줄이기, 나무심기 캠페인,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캠페인, 화학 조미료 안 먹는 날 캠페인,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패스트푸드점 환경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셋째, Global Youth Forum, 세계 어린이 환경회의, Junior Eco Club Asia Pacific Conference 등 국제 활동이다.

넷째, 수련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이다. 녹색소년단 캠프, 겨울환경기행, 초, 중, 고 간부단원수련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섯째, 지도자 연수 워크숍, 지방순회 지도교사 환경연수, 환경교육 지도자연수 등 녹색소년단 지도교사를 포함한 초, 중,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관련내용으로 환경교육으로서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분기별 활동 자료집에 의한 녹색소년단 교내활동 등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현장교육을 통하여 자연 사랑의 마음과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형성한다. 일곱째, 조사연구

활동이다. 학교쓰레기 발생량 조사, 한강 수계의 환경오염실태조사 등 지역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로 환경에 대한 학술적인 기초를 마련한다. 여덟째, 녹색등반대회, 그린훼밀리축제, 환경음악제, 공모전, 환경바자회, 등 각종 이벤트 사업을 펼친다. 마지막은 봉사활동으로 학교환경 가꾸기, 교내 분리수거 작업 등 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다.

녹색소년단은 학교단위로 구성되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며, 프로그램은 개인별 참여가 가능하다.

(4) 아이지엘

IGL은 '나(I)는 지구(Globe)를 사랑한다(Love)'는 뜻이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중고생 80여명이 99년부터 준비해서 2000년 2월에 설립되었고 회원은 약 170여명이다. 2000년 5월에는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과 함께 2백 명의 '미래 세대 소송인단'을 구성해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지엘의 활동은 생태기행활동, 소식지발행, 문화체험활동, 주말농장활동, 야생동물보호활동, 환경퍼포먼스, cyber-eco홈페이지운영, 시민캠페인(컵라면 종이용기사용, 내복입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등), 미래세대 환경이야기 토론마당 개최(영상물 상영, 100분 토론회, 청소년 자유발언대, 초청강연, 환경퍼포먼스 등)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미래세대 환경이야기 토론마당은 청소년 스스로 발제하고 질문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등 청소년주최 활동이다.

특히 아지엘은 미래세대 환경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국각지의 청소년 2백여명의 미래세대 소송인단 구성을 통한 새만금간척사업반대 미래세대 소송제기와 공동성명서 발표(2000),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 아이지엘 홈페이지 자료실 코너의 "미래세대 환경권" 학습장 운영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환경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으로서 전국중고등학생연합회 등과 같은 다른 청소년 환경동아리나 환경관련 교수 및 시민과의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아이지엘은 2002년 주된 활동으로 서울 도심 안에서의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둘째주 일요일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첫번째로 시작한 6월 생태탐방 활동은 참가자가 필기도구와 나무도감을 가지고, 경복궁의 문화역사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스스로가 직접 알아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었다.

아이지엘의 활동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환경활동 인정제도인 청소년대상 환경시상제도, 학교의 지원, 학교・공공기관・문화사업기관・지역사회 자원과 밀접한 연계, 청소년 환경동아리간의 교류활동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5) 에코틴

청소년 환경동아리 네트워크인 에코틴(http://www.ecoteen.net)은 '녹색소비자연대'의 청소년 조직으로서, 환경동아리 실천가이드와 여러 가지 활동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에코틴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계 관찰하기, 수목 관찰하기, 소생태계 만들기, 새가 날아오는 학교 숲, 교내 소비생활 감사(에너지/물/쓰레기)등이 있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 쾌적한 거리 만들기(주제별 모니터링, 지역보행환경탐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쓰레기를 좇아서(지역쓰레기 행정감사활동, 쓰레기추적활동)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 녹색소비 대안교과서 작성을 위한 환경교과서 및 환경관련 교재 모니터링, 청소년 녹색소비 대안 교과서 모델을 발간하였다. 녹색상품 평가단, 카시오페이아, REE, 에코 마니아, 푸른 헌터, 가람 등과 같은 환경동아리 모임방도 구성되어있다.

'카시오페이아'는 생태 기행단으로 두 번에 걸친 생태탐사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생태기행을 떠나기로 하면서 탄생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연합동아리이다. '푸른 헌터'란 푸른 사냥꾼으로 가정, 학교, 지역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포항, 대동, 항동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은 총8명으로 회장, 인터넷, 홍보, 회원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대학생지도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가람'은 원래 영일고등학교 인터랙타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였는데, 포항 녹색 소비자연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그린네트워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동아리 인원은 총 45명 정도이며, 회장, 부회장(2명), 총무, 1학년대표, 회원(1,2학년)등의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다.

‘녹색상품평가단’은 녹색상품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품질을 평가해 보고 어떤 점을 개선하면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녹색상품평가단은 청소년NGO 한마당 행사에서 청소년 녹색소비 활동을 신청한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품평가는 재생노트, 재활용 화장지, 리필 칫솔, 비누 등을 직접 써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REE’는 Recycling, Reusing, Refeeling의 약자로 혜성여고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환경동아리로서 회원은 약 30명 정도이다.

에코틴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청소년들 인터뷰에서 회원들은 ‘처음엔 학교 봉사활동 때문에 환경활동을 참여하게 되었지만 환경활동이 좋은 일을 하는 활동인 것 같고 열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어떤 활동인지 알고싶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에코틴 활동에 대한 소감을 중학교 1학년인 한 회원은 “청소년의 힘으로 환경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경험을 길러주는 것 같다. 처음 동아리시작은 봉사활동 점수 때문이었고, 많은 자원봉사기관 중 봉사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참여동기를 소개하였다. 다른 중학교 1학년인 회원은 “학교게시판에서 소개글을 보고 동아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개개인의 활동아 아니라서 또래들이나 언니, 오빠들과 만날 수 있어 더 흥미롭다. 아직은 그냥 기대감 반 불안감 반이다. 아직 활동이라는 것을 많이 못해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다른 고등학교 1학년인 회원은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서 환경동아리 활동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했던 활동으로 보아서는 괜찮은 활동인 것 같고, 학교수업보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학교 봉사활동시간 때문에 시작했다. 학교봉사활동시간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활동을 소개했다.

활동과정상에서는 지도자가 조정역할을 하지만 에코틴 지도자나 실무진이 자주 바뀌지 말아야하고,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이나 대안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활동 필요 등이 제기되었다.

2) 지도자와 함께 하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1) 새만금 갯벌 미래세대 소송

새만금 갯벌을 둘러싼 미래세대 소송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생명회의가 공동으로 기획한 미래세대 소송(미래세대를 대리한 신탁소송)이다. 녹색연합과 생명회의에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사라질 위험에 처한 새만금 갯벌의 운명에 대해 미래세대들의 의사를 묻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자를 모집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 지킴이" 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2000년 5월 4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생후 3개월 된 영아로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200명이 원고가 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소송에 대하여 2001년 7월 25일 판결결과는 미래세대소송의 소송 각하 및 소송비용 원고부담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 내에 사는 김정현 등 37인의 원고는 원고로서 적합하나 다른 곳에 사는 전수진 외, 120여명은 실질적으로 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원고로 부적합하며, 37인의 원고도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후 녹색연합에서는 미래세대소송인단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8월 항소하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분당 환경 시민의 모임에서 1994년부터 경기도 성남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1994년 초기에 1회 성인 활동에 그쳤던 교육활동이 1998년에는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로 발전하여 2001년까지 모두 17기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성남지역 내 맹산 지역을 보전함과 동시에 자연, 그리고 역사문화를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케 하는 프로그램이다.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의 프로그램은 크게 역사 · 문화생활 체험환경교육, 환경 감수성 증진을 위한 체험환경교육, 만들기 활동을 통한 체험환경교육, 학습활동을 통한 체험환경교육 등이 있다.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각계각층의 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환경학교, 청소년 환경학교, 주부 환경학교, 가족단위 및 단체 환경학교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지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분당 환경 시민의 모임에서는 맹산 일대를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습안내판 및 방문객 안내소 설치, 자생식물원 조성, 습지(논) 및 식생 조성관리, 새집 조성활동, 반딧불이 사육 · 증식 · 방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3) 구리YMCA: 푸른 꿈 실천을 위한 청소년의제21 만들기

'푸른 꿈 실천을 위한 청소년 의제21 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년 활동주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청소년 의제21 만들기를 통하여 장기적인 환경운동의 방향을 설정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구리시 지역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구리YMCA의 주관으로 '청소년 환경푸름이'를 구성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및 다양한 환경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의제21 만들기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구리지역 고등학생 23명을 모집하여 '청소년의제21 위원(청소년 환경푸름이)'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토론회, 청소년의제21 선포식, 환경실태조사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교육활동은 5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청소년 환경푸름이 활동 참가 이유 및 목표 설정,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품은?, 우리 학교와 집 환경지도 만들기, 환경문장 이어가기, 모의생태계 복원하기, 우리가 결정한 작은 실천과제 만들기 등이었다.

청소년의제21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청소년 토론회는 청소년의제21 위원, 청소년 녹색소비운동단, 지역 청소년 및 시민 등이 참석하여 구리시 환경실태조사 발표, 청소

년 환경의식 조사 발표 등이 있었다.

청소년의제21 선포식은 청소년들이 선택한 청소년의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그 의제는 다음과 같았다.

1.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동'에 참여한다.
2.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활동에 참여한다.
3. 정기적인 물물교환의 장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킨다.
4. 환경의식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한다.
5. 가정에서 세제사용을 적게 하고, 분리수거를 잘한다.
6. 왕숙천, 아차산 등 환경정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7. 변기에 벽돌을 넣는 등 물을 아껴 쓰는 활동을 한다.
8. 환경마크를 확인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한다.
9. 1인 1나무심기, 1인 화분가꾸기 활동에 참여한다.
10. 음식은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며, 음식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배출한다.
11. 구리시의 나쁜 환경(러브호텔, 유흥업소 등) 개선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12.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13. 청소년들이 좀더 쉽게 구리시 환경문제에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14. 나부터 실천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은 실천부터 실행한다.
15. 쓰레기 줍기,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한다.

'청소년 환경푸름이'의 조사 활동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지역과 학교의 환경 실태와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리시 거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환경의식 조사가 있었으며, 구리시 환경실태조사를 통해서 대기 분야(돌다리~교문사거리 지역), 물 분야(왕숙천, 아차산), 자연·재생 분야(왕숙

천, 아차산), 녹지·생태 분야(왕숙천, 아차산)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내 환경보전 및 실천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각 학교 청소년의제 위원회 위원이 참가하여 구리시 관내의 인창고등학교, 구리고등학교, 인창중학교, 동구중학교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의 물, 전기, 교구 사용과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 교내 환경에 대한 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도 하였다.

(4) 시흥 정왕고등학교 환경참여 활동

시흥 정왕고등학교의 친환경적인 학교를 가꿔가는 환경동아리 운영사업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틈틈이 우리 식물을 키워 학교를 다양한 생태가 살아가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가꾸고, 지역 환경시설과 연계해 지역의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름다운 학교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2001년도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화단 가꾸기, 빗물을 이용한 연못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환경교육을 미술 수업 등 다른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주요 활동은 학교 가꾸기, 생태탐사 및 활동발표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교 가꾸기 활동은 학교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화단에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빗물을 이용한 연못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화단 가꾸기 활동으로 학교내 화단면적을 확대하고, 잔디만 있던 화단에 잔디를 걷어 내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화단에 다양한 생물이 자라도록 하였다. 화단의 계절별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하고, 화단식물에 명찰을 달고, 화단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미술수업 등을 진행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빗물을 이용하여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을 키웠으며 주변에 다양한 꽃을 심어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생태탐사 및 활동발표회 활동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광릉숲 탐사, 옥구공원 탐사, 오이도 갯벌 탐사,

수리산 생태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를 전시회를 개최하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5) 안양 신안중학교의 '시민과 함께 하는 수리산·수암천의 환경파수꾼'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길러주고, 내 고장의 환경은 내가 지킨다는 환경지킴이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1년도에 신안중학교 환경탐사반 40명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수리산 및 수암산 생태조사, 안양천 생태투어 및 환경 체험학습장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리산 환경체험학습을 통한 생태조사 실시를 통해 식물이름 알기 및 분포 조사, 수리산 계곡의 하나인 수암천의 수서생물에 대한 생태 탐사 활동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이미 설치된 환경지표 표지판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환경체험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암천 생태조사를 통해서 수암천의 수서생물 조사활동을 기록하고 수서곤충과 수질오염의 관계에 관한 체험 활동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수암천 생태조사를 통한 수서곤충의 종류 영상자료 제작하기도 하였다.

안양천 생태 투어 및 환경 체험학습장 견학으로 안양천의 본류 및 지천들에 대한 생태투어를 실시하고, 안양천 생태조사 및 문화유적지 조사, 안양천살리기 행사 참가 등의 활동을 하였다.

(6) 권선고등학교의 도시 속의 학교를 생태적인 공간조성

초기 권선고등학교의 환경교육은 환경담당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환경 오염문제를 공부하며 재활용품 모으기 등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집중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환경에 한계와 많은 문제가 매일 생활하는 학교 공간을 좀 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가꾸고 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을 배우고 그 결과물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생태적인 감수성을 함양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활동 환경반으로 "꽃을 사랑하는 모임" (꽃사모)을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버려져 있던 공간에 우리 꽃밭을 가꾸고 두 곳의 연못을 만들었다. 특히 두 개의 연못에 주목하는데, 물이 담긴 연못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켜주고 도시에 살고있는 새들에게 건강한 물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못 중의 하나는 수원시에 정식 허락을 받아 학생들이 학교 밖 도로변에 설치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 도시 속에서 가로변 연못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가로 연못이 현실화된다면 기초적인 것은 시에서 만들어주고 관리는 가까운 학교에서 관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환경에도 참여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참여형 그리고 장기형의 생태공간이 확보되고 학생들은 이곳을 하나의 경험과 배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공부에 찌든 학생들이 틈틈이 우리 꽃밭과 연못을 찾아 휴식을 즐길 수 있었고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었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간접적으로나마 배우는 계기가 된다. 학교에서도 남자 교사들의 흡연을 위해 지을 휴게실 예산을 생태 연못과 산책로를 만드는데 대신 쓰기도 하는 등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3. 외국의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 사례

1) Stefanie Lacy : 반데라지역 종이 재활용

미국의 텍사스주 반데라(Bandera)지역에 사는 Stefanie Lacy[3]는 2002년 TEEA(Texas Environment Excellence Award)[4]에서 처음으로 개인부문에서 상을 받은 첫 번째 청소년이자 2002년 Brower Youth Award[5]에서 상을 받은 반데라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녀는

3) 2002 Texas Environment Excellence Award Winners, 2002 Brower Youth Award Winners

4) 1993년의 쓰레기 줄이기 정책 하에 TCEQ(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 Quality)가 1993년에 시작한 대회이다. 매번 봄에 개최되며, 그 주에서 가장 뛰어난 쓰레기 처리와 오염예방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람에게 상이 돌아간다. 텍사스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나 단체,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을 주고 있다.

반데라 지역이 대목장과 로데오에만 관심을 가지는 단지 카우보이타운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칭 '세계의 카우보이 도시'인 반데라 지역이 환경을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반데라 지역에 재활용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폐휴지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갔다. 우선 그녀는 70마일이나 떨어진 샌안토니오에 있는 Texas Recycled-member Abitibi-Consolidated라는 회사에게 재활용 저장소를 반데라 지역에 빌려주고 그것을 차로 운반할 것을 요청했다. 그 다음 그녀는 학교, 기업, 반데라 주민의 지지를 얻으며 그들을 그 작업에 참여시켰다.

그녀의 노력은 크게 성공했다. 그녀는 매립지로부터 온 280톤의 폐지를 재활용시키는 종이재활용프로그램을 만들고 거의 4600그루의 나무를 살렸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약 6000달러를 받았고, the Friends of the Library of Bandera County와 the Animal Welfare Society of Bandera County에 모든 돈을 기부했다. 그녀는 "만약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프로젝트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환경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부심이 스며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2) Amir Nadav : 학교 주변 버스 공회전 금지운동

미국 미네소타 St. Paul에 있는 Highland Park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세 Amir Nadav[6]는 미네소타 학생들이 위험한 디젤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의 노력은 학교 앞에서 큰 버스가 공회전하는 것을 막고, 학교로 하여금 버스 주차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공기 흡입 밸브를 재설치하도록 만들었다. Nadav와 그의 또래들은 청원서를 널리 배포하고, St. Paul의 Highland와 Central 고등학교뿐 아니라 도시 전지역에 걸친 다른 학교를 통해서도 청원서를 모았다. 학생들은 주의회 의사당 계

---

5) 환경주의자인 David Brower에 의해 1982년에 설립된 Earth Island Institute에 의해 운영되는 대회이다. 지구 환경의 보존과 보전, 복구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면서 창조적인 개인의 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Earth Island Institute와 관련 재단,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6) 2002 Brower Youth Award Winners

단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Roger Moe에게 약 1,000여개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뉴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 개인적으로 로비를 벌여 주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자들로부터 법안의 승인을 얻어냈다.

법안의 내용은 디젤 학교버스의 기사는 아이들 근처에서 학교버스가 공회전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고 운전기사들은 학교 공기주입시스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버스를 주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Navda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 법안을 다른 학교들도 인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자동차 생산자들이 좀더 나은 연료효율성을 가진 차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ticketing"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그 티켓을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린 티켓이 우편으로 자동차 제조업자들과 연방기관, 그 외의 기관들에 도착하길 바라고 있다.

Nadav와 다른 청소년들은 최근에 Egan 주차지역에 있는 차량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동차는 우리의 거리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나쁘게 만든다. 세계의 기후 변화와 해로운 공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힌 오렌지 티켓을 전달하고 있다. Navda는 "학생 운동가들의 존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을 넘어서 관료적이고 활기 없고 위계적인 기성세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게으른 십대들의 날은 끝났다" 라고 말했다.

3) Nathan Wyeth : 세계경제 학생운동

17세 된 매릴랜드(Maryland) 고등학교 학생인 Nathan[7])은 세계화의 현 모델로 인해 제기된 환경위협에 대응해서 창설된 Sierra 학생 연합(SSC) 학생운동의 세계경제 학생운동 프로그램(Student Action on the Global Economy : SAEG) 공동 창설자이자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청소년이다. Nathan에 의하면 거대한 가스와 기름, 개발도상국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에서부터 청정대기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한 고래보호법과 같은 미국 법률의 약화까지, 국제경제정책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

7) 2002 Brower Youth Award Winners

WTO와 세계은행에 반대한 시애틀과 워싱톤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벌인 뒤, 2년 동안 세계경제 학생운동 프로그램은 동부의 30명 학생에서부터 40개 주에 걸친 거의 500명의 대학생들과 고등학교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전략은 민주주의와 평등, 사회정의, 환경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기반을 둔 성장하는 세계 경제를 재건한다는 임무를 뒷받침하는 대중시위와 의회로비, 대중 교육을 포함한다.

4) Morgan Danielle Dusch : 파토카 호수 수질개선 운동

미국 인디애나 팔리오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Morgan Danielle Dusch[8])는 그 지역의 인공호수인 파토카(Patoka)의 건강상태와 생존력에 대한 야심 찬 연구를 했다. 그녀는 철저한 화학적 실험과, 박테리아와 물리적 테스트를 하면서 인디아나 남쪽에 위치한 파토카 인공호수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수질과 그 호수의 입구 흐름의 화학 순도가 낮아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 호수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수질에 대한 그녀의 분석 결과 그 호수의 때 이른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파토카 호수는 매우 아름다워서 캠핑하는 사람들과 배타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사냥꾼과 주변 지역의 낚시꾼까지 몰려들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염이라는 댓가가 뒤따랐다. 그 호수가 나빠져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파토카에 급수를 의지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이었다.

조사자인 Dusch는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그 호수의 수질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그녀의 연구를 통해 찾아냈다. 그녀는 계절별로 수집된 데이터와 역사적 데이터를 비교했고, 앞으로 25년 동안의 호수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 시리즈물을 만들었다. 실제로 화학적 박테리아 데이터에 의하면, 상대적인 위험에 대한 Dusch의 평가에서 나온 비교 데이터는 파토카 호수는 더 이상 2015년 이후에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공병단

8) President's Environmental Youth Awards 1999 winner : 1971년 이후,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지원하는 상이다. 미국 전역에 걸쳐 환경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입증하는 프로젝트를 표창하는 프로그램이다.

은 Dusch를 수질 테스트에 초대했고 호수의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하고 미래에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토카 댐 아래의 시멘트 칸막이의 임시 수리에 예산을 할당했다.

5) Bethany Henderson-Hockey : 풍선 반대 캠페인

오스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주(NSW)에 사는 Bethany Henderson -Hockey[9)]는 12세의 반기구(anti-balloon) 운동가이다. 그녀는 스포츠나 이벤트에서 공중에 띄우는 큰 풍선에 종종 사용되는 헬륨으로 가득 찬 기구가 바다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몇 년 동안 활동해 왔다.

어린이의 솔직함과 대담함이 결합된 그녀의 예리한 대중인식은 그녀가 반기구운동을 하기 위해 정치가와 연예인, 미디어 대표들을 직접 만나도록 이끌었다.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에 띄워지는 어떤 기구도 반대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Shadow Minister for Environment인 Peta Seaton와 뉴사우스웨일즈 수상 Bob Carr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Betany는 또한 자신의 사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구뿐 아니라 집에서의 실험을 통한 결과도 이용했다. 결국, 올림픽에서는 아무런 기구(balloon)도 띄어지지 않았고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는 뉴사우스웨일즈 전지역의 기구 띄우는 것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시행 수정법안을 2000년 11월에 통과시켰다.

6)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어린이들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공동체(Communities for a Better Environment : CBE)'[10)]의 지원

9) Reader's Digest Environment Awards 2001 winner : 1996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매년 미래 세대의 환경보호를 위해 일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들에게 표창하는 상이다.

10)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만들고 무독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 CBE의 독특한 세가지 전략은 풀뿌리조직 활동, 환경조사와 법적 지원이다. CBE는 산업 오염으로 인해 영향받는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 모니터하고,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도구를 갖추도록 도와준다.

을 받고있는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어린이들(Kids Against Environment Pollution)'[11]은 그들의 환경권리를 위한 12세에서 18세 된 중고등학생 그룹이다. 그 청소년들은 캘리포니아 Rodeo에 있는 토스코(Tosco) 정유공장 옆에 있는 배이오 비스타 주거지역에서 출발했다.

배이오 비스타 청소년들은 "양동이 여단(Bucket Brigade)"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역의 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을 키워가기 위해 활동해왔다. 청소년들은 화학시설 옆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기모니터링 기계를 만들어 삼 년 동안 참여해 왔다. 배이오 비스타에서 청소년 회원들은 사고와 일상적인 방출로부터 발생하는 독소물질 방출을 줄이도록 토스코 정유소에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배이오 비스타 청소년들은 두 가지 오염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양동이 여단(Bucket Brigade)은 대기표본 양동이를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른들에게 훈련시키고, 대기표본을 조사하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철책 모니터 시스템은 토스코 정유공장에서의 공기방출을 실시간 측정하는 대기질 측정 시스템이다. 이것은 300개가 넘는 화학물질을 테스트하는 독특하고 유일한 시스템이다(대부분의 정제 모니터는 한가지 화학물질만을 다룰 뿐이다).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어린이들"을 배이오 비스타에서 그들의 부모와 다른 어른들을 참여시키면서 그 방법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그들은 정유공장의 철책을 통해 지나가는 각각의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이며 무슨 화학물질인지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철책 감시자의 접근을 요청하는 편지를 토스코에게 보냈다.

7) 지구보존대 독수리 지킴이

지구보존대(Earth Conservation Corps : ECC)[12]의 한 활동지부인 지구보존대 독수리

---

11) http://www.cbecal.org/youth/youth_ba.htm (검색일: 2002. 8. 21)
12) Washington D.C. 지역의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들을 도와주는데 목적을 둔 환경교육과 직업교육,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1989년에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지킴이(ECC Eagle Corps)[13] 는 워싱톤의 아나코스티아(Anacostia) 강을 따라 대머리 독수리와 서식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클럽이다. 클럽회원들은 18세에서 25세 된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에는 빈곤과 약물, 폭력범죄에 시달린 주거 프로젝트로부터 모여 시작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환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물고기 공급을 급격히 줄어들게 한 수질오염 때문에 대머리 독수리는 약 50년 전부터 워싱턴에 둥지 틀기를 멈추었다. 그래서 지구보존대 회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역 강과 호수를 대머리 독수리의 주요 자연 서식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천에서 4,300개의 폐타이어를 제거하고, 작은 댐 주변의 물고기 통로를 만들고, 개울둑을 수리하고,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환경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시켰다. 또한 둥지상자를 만들고, 먹이 먹는 것을 도와주고, 국가 수목원에서 자라는 독수리 새끼들을 풀어주었다. 짧은 시간 안에 지구보존대는 그들 지역의 독수리 숫자를 예전처럼 회복시켰다. 몇 종의 물고기는 이미 예전의 숫자로 되돌아 왔고, 해오라기와 거북이, 비버(beaver)는 새로운 깨끗한 거주지에 그들의 집을 만들게 되었다.

8) 스탠리(Stanley) 초등학교의 환경프로그램

오스트레일리아의 타스매니아 버니(Tasmania Burnie) 지역의 스탠리 초등학교[14]의 45명 학생들은 그들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프로그램은 학교 주변 지역의 개발과 유지, 학교 안팎 지역사회의 프로젝트 참여, 지역사회 전반의 환경 교육과 같은 세 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년 전, 지역의 유원지 근처의 바람막이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스탠리 초등학교의 환경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의 환경 프로젝트에 거주민 그 자신을 참여시킬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 활동은 보트 이용자들에게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에서부터 지역의 해안가와 공원의 대청소까지 다양하다. 2002년과 그 외의 프로젝트에는 반

---

13) http:// www.humaneteen.org/sag/clubsinaction.shtm (검색일: 2002. 8. 22)

http://www.eccl.org/eaglecorps.htm (검색일: 2002. 8. 30)

14) Reader's Digest Environment Awards 2000 winner

도 지역 보호와 해안보호 그룹, 국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 지역 위원회, 해양 이사회와 거주자들도 포함시켰다.

9) 매이트랜드 청소년 환경 위원회

오스트레일리아의 매이트랜드 청소년 환경위원회(Enviro Youth Council)[15]는 매이트랜드 청소년 환경 포럼에 참가한 여덟 개 지역의 고등학교 240명의 학생들에 의해 1997년에 시작되었다. 이 환경그룹은 포럼을 통해 매이트랜드 위원회로부터 인정과 허가를 받았고 그 지역의 집수 관리 트러스트를 발전시켰다. 매이트랜드 청소년 환경 위원회는 그 이후 자원봉사에 기반을 둔 100명의 청소년들이 이끌고 조직하는 헌신적이고 활동적이며 혁신적인 활동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제방에 있는 자연목과 관목, 풀을 복원했는데, 수풀지역을 복원하고, 자연 식물 재배를 통해 세 개의 습지대의 건강상태를 향상시켰다. 그 그룹은 생태 지속가능성의 실증적 사례를 보여주면서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의 교육 활동은 매이트랜드와 주변 지역의 몇 백명 학생들을 참여시키면서 매년 열리는 환경 청소년 훈련 캠프를 계획하고 주최하는 활동과 매년 매이트랜드 청소년 환경 포럼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활동이다. 그들은 그 외의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 환경위원회를 만들고 청소년 환경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다.

10) 섬지킴이(Islandcare)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위치한 Norfolk Island Central School의 학생들은 '섬지킴이(Islandcare)[16]' 활동을 통해 지역 TV에 중계되는 환경 메세지를 보여주는 주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많은 수의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섬 지킴이는 보호지역 관리자에 의

---

15) Reader's Digest Environment Awards 1999 winner
16) Reader's Digest Environment Awards 1999 winner

해 만들어진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한 섬의 네 군데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그 지역의 정부에 제공했다. 또한 그 환경클럽 회원들은 토양보호와 해양보호, 강 보호와 같은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섬을 알리기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또한 국제적인 환경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Norfolk Island 청소년 의회는 한 달에 한번 입법의회에서 만나서, 환경과 청소년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들의 제안을 지방 정부에게 전달했다.

11) 시에라 학생연합

시에라 학생연합 (Sierra Student Coalition : SSC)[17]은 1892년 John Muir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700,000명의 회원을 가진 시에라 클럽의 지부로 운영되는 학생연합이다. 시에라 학생연합의 모체인 시에라 클럽은 지구의 야생지역을 탐색하여 보호하고, 지구의 생태체계와 자원에 대한 분별 있는 이용을 실행하고 증진시키는 등의 임무를 갖고 있는 환경 보전 클럽이다.

시에라 학생연합은 Adam Weirbach에 의해 1991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대학캠퍼스와 고등학교에서 100개 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700명의 활동가들과 24,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 시에라 학생연합은 매년 일반 회원들 중에서 선출된 7명의 실행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활동은 보존활동, 네트워크활동, 훈련활동, 야외활동 등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보존활동은 시에라 학생연합의 실제적인 환경 목표로서 산림보호, 세계경제에 대한 학생운동, 지구 온난화, 북극 황야지대와 유타(Utah) 황야지대 등 다섯 지역을 보호하는 국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에라 학생연합은 산림보호 캠페인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국립산림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도로 없는 지역 정책'을 실시하도록 만들었다. 복잡한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형성된 세계경제에 대한 학생운동(Student Action on the Global Economy : SAGE)은 새로운 사회 운동 에너지로 영역을 열어가면서 월드뱅크의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반대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보존 부서의 활동은 보존위

17) http://www.sierraclub.org (검색일: 2002. 8. 30)

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그 위원회는 캠페인 조정자와 몇몇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활동은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그 네트워크 부서의 주요 기술은 주 조정 시스템(State Coordinator System)이다. 주 조정자들은 그들 주에서의 활동가들과 연락을 취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해주는 것을 돕고 일반적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훈련은 활동가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훈련 부서는 학기 중 6내지 8회 정도의 워크샵을 개최하고 여름방학동안 7회의 워크샵을 실시한다. 야외활동은 새로운 부서인데, 모든 시에라 학생연합 회원들에게 개방된 황야 지역 탐사활동을 실시한다.

12) 지구 군대

지구 군대(Earth Force)[18]는 변화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이다. 지구군대를 통해 청소년들은 그들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실행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시민권 행사와 환경적 책임감을 발전시킨다. 지구군대는 12-17세 되는 15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자문위원회와 함께 청소년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4년에 Pew Charitable Trusts에 의해 설립된 지구군대는 두 가지의 점점 두드러지는 국내 흐름(환경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넘쳐나는 욕구와 자원봉사를 통해 그들의 지역사회를 돕고자하는 그들의 희망)을 인지하고 있었다. 여론조사는 끊임없이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행위에 관심이 감소하는 대신에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구군대의 첫 번째 캠페인인 "Kids Choose" 선거에는 146,0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이 캠페인의 두 가지 이슈는 야생을 보호하자는 것과 나무를 심고 돌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년동안의 운동 캠페인이었는데, 1994년 가을에는 “Go Wildlife For Wildlife"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1995년에는 "Team Up For Trees"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결과로 몇 백 몇 천명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환경을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18) http://www.earthforce.org (검색일: 2002. 8. 22)

1995년과 1996년에 이루어진 "Pennies for Planet" 캠페인은 세계의 다른 지역 서식지와 열대 산림을 돕는 운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 청소년들은 서식지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금했다. Earth Force는 청소년들이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지역과 국내의 환경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얘기 나누는 포럼으로 타운미팅을 개발하여 Earth Force 타운미팅인 “Kids Speak Out!"이라는 프로그램을 1995년과 1996년에 실시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당선된 공직자들과 다른 정책 입안자들과의 지역 공공 포럼과 미팅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다.

지구군대의 지역사회실천과 문제해결(Community Action and Problem Solving : CAPS) 프로그램은 환경교육과 서비스 훈련, 시민 교육의 가장 최선의 실천방법으로,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소개하기 위한 정치와 지역사회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활동계획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13)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Club of Youth Working for Environment : CYWEN)[19]은 인도의 환경산림 부서 산하의 환경교육센터로부터 지원을 받는 15세에서 21세사이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클럽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은 환경교육센터에 의해 운영되는 “깨끗한 녹색 프로젝트(Clean Green Projects : CGP’s)”라 불리우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출발하였는데, 1996년 6월 5일에 15개의 단체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은 두 개 이상의 “깨끗한 녹색 프로젝트”를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 프로젝트는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 신입회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은 에너지 보존과 고형쓰레기 관리, 나무심기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고, 지역사회 내에서 환경 인식을 깨우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은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위한 도구로써 다양한 미디

19) http://members.tripod.com/~cywen/ (검색일: 2002. 8. 22)

어를 개발시켰고, 좀더 최근에는 사회 일반의 환경문제에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미디어와의 연계를 유지해 왔고, 환경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하는 언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은 정보 수집가와 선전자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범위를 확장하려고 한다. 환경을 보호하는 청소년 클럽은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퀴즈, 꼭두각시 공연, 전시회, 게임, 슬라이드 쇼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94년부터 시작된 "깨끗한 녹색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도시에서의 고형쓰레기 처리에 대해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야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깨끗한 녹색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쓰레기 처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동원해서 좀더 향상된 쓰레기 처리로 나아가도록 하고 이러한 행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네 가지 단위-오리엔테이션, 연구조사, 의사소통, 실행-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14) 가나의 에버그린 클럽

가나의 에버그린 클럽(Evergreen Club of Ghana : ECOG)[20]은 학교 구내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목적을 가진 자원봉사자 어린이 클럽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청소년 그룹과 어린이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유일한 파트너쉽을 가진 어른들을 포함한 중요한 임무를 가진 전국적인 비영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학교에서의 발표와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실연, 실제 경험을 통해 가나의 에버그린 클럽은 청소년들이 보존의 중요성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나의 에버그린 클럽은 모든 지역에서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정부기관과 지역의 비영리조직, 국제 기구와 함께 일하고 있다. 가나의 에버그린 클럽은 가나의 1991년과 1994년 환

20) UNEP Youth Award Winner in 2001 : 젊은이들의 환경보호 참여를 표창하기 위한 의도로, 1992년에 브라질의 르노데자이루에서 열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처음 시작된 Global 500 Youth Environmental Award이다.

경 행동 계획의 준비에 참여했고, 1992년의 지구정상회담을 위해 환경에 대한 첫 번째 국내 청소년과 아동들 포럼을 개최했고, 그 해에 환경에 대한 첫 번째 보고 사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1992년 이후 매년 국내 환경인식 캠페인을 했고 1994년 이후에는 산림관리 프로젝트에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시켰다. 1997년과 2000년에는 청소년의 산림관리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국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993년과 1994년, 1995년에는 제네바와 미국에서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국제 리더쉽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카메론에서 산림과 지속 가능한 발달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아프리카 지역 미팅에 참가했다. 2000년에는 헤이그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에서 청소년 포럼에 참가했다. 그 조직은 또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달에 대한 에버그린 뉴스와 뉴스레터를 간행한다.

15) 청소년 환경저널리스트 그룹

십년 전, 중국 북쪽의 Jiangsu 지방의 한 마을인 Xuzhou Coalmine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환경 저널리스트 그룹[21] 활동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을 둘러싼 세계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아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주로 대중교육활동에 주로 중점을 두게 되었다. 청소년 환경저널리스트 그룹은 작문, 사진, 말하기, 이야기하기 등의 콘테스트를 열었고, 지역의 환경당국과 함께 대중들에게 죽어 가는 개구리의 손해와 그 개구리 고기의 불법적 매매를 비롯해서 쓰레기로부터 그 지역의 강과 호수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나무를 심기와 같이, 학교 대청소 캠페인을 직접 조직화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교과에 참여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일들을 했다. 학생들은 Kui River을 따라서 오염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를 그려서 지방자치정부에 제출했다.

그들은 또한 보하이만에서 근해수질오염을 조사했고, 페스트 통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후난 지방까지 갔으며, 그 지역 목장의 사막화를 보기 위해서 발리

21) UNEP Youth Award Winner in 1996

뉴 지역과 내몽고를 방문하였으며 그 지역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북서쪽 중국을 통해 여행을 했다.

16) 그린캅

그린캅(Green Corps)[22]은 환경 지도자로서 경험을 시작하는 것을 도와 줄 환경단체를 위한 비영리 현장 학교다. 그린캅은 지구에 직면한 예측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해 비전있고 재능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환경과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오염원과 약탈자에게 대응해서 일어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환경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내일의 전쟁에 승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오늘날의 환경 캠페인에 중요한 현장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1992년에 설립되었다.

매년 30명의 대학졸업자를 초대해서 조직화와 옹호(advocacy) 경험을 시작한다. 환경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은 공중보건과 환경을 위해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승리를 얻는데 필요한 실천 훈련과 경험을 쌓는다.

지금까지 환경운동 내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위한 150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들을 훈련시켜왔다. 환경지도자 훈련프로그램 졸업자의 85% 이상이 야생동물 옹호자들과 시에라 클럽, 그린피스를 포함한 지역과 주, 국내 단체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2000년과 2001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캠페인은 공중보건보호와 극지 야생생물 서식처 보호 캠페인이다. Defending Public Health공중보건보호 캠페인은 그 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더러운 다섯 공장들이 현재의 공해 표준수치를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다섯 곳의 공장은 1977년 이전에 세워졌고 현재 연방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상태로, 새로운 동력 공장들보다 더 많은 공해물질을 방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그들의 공해는 천식과 폐기종,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그 주에서 몇 백 명의 때 이른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린캅은 지역사회조직과 함께 지역과 주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 허점을 막고 공기를 깨끗이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의사 결정자들이 교육을 받고 이를 행동에 옮

22) http://www.greencorps.org (검색일: 2002. 9. 3)

기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그 주 전체의 시민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청원서와 편지, 전화를 통해서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건강 연구결과물을 발간하고 대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리포터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코네티컷 지역에서의 활동은 동력 공장 정리 법률이 될지 모를 청 원서를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대중들의 요청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극지 야생생물 서식처 보호 캠페인에서 그린캅은 1999년에 Alaska Wilderness League와 함께 거대한 아웃리치 캠페인을 이끌었으며, 정유공장에 의해 생긴 위협으로부터 알라스카의 원시 야생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을 교육시켰다. 그린캅은 수 천명의 거주자들과 만나서 원시 야생 지역 아래에 묻힌 오일을 추출해내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엑슨 모바일과 아모코사는 유전굴착을 위해 극지 야생생물 서식처를 개발할 권리를 확보하려고 했다. 순록과 북극곰, 몇 백 종류의 철새를 위해 중요한 번식 지역인 이 생태계는 유전개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그 서식지에 있는 석유는 미국에게 6개월 동안의 석유 공급만을 해줄 양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민감한 생태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이 근시안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전 개발로부터 극지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Alaska Wilderness League와 함께 일하고 있다.

17) 대니서

대니서(Danny Seo, 한국명 서지윤)는 한국계 이민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 중부의 완만한 농지인 레딩의 변두리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 지역 병원에 일자리를 구해 가족과 함께 병원 근처로 이주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길렀고 대니를 우체국이나 시위장까지 차로 데려다 주면서 그가 꼬마 활동가가 되는데 도움을 줬다.

대니서가 처음 연못이 있는 숲을 지켜내기 위해 실천적 행동을 시작한 것은 불과 12세 때였다. 당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지구 2000'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마을 숲 지키기 운동을 벌였다. 1년여만에 이 일이 성공을 거두자 그는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열대 우림이 불타 사라지며 동물이 사라지는 등 파괴되어 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얼마 뒤 이 단체는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2만 6천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 환경보호단체로서 그 명성을 떨쳤다. 또한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니서의 환경운동은 지난 10년 간 미국의 '뉴스위크',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소개되었고,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대니 서는 많은 환경보호 운동과 동물보호 운동을 비롯, 각종 자선단체를 위해 기부금 모금사업을 벌여 십대에 이미 대표적인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로 공적을 세웠다.

대니서는 1997년에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보호, 나아가 시민운동의 길을 안내한 핸드북 '행동하는 세대'에 이어 1999년에는 자신의 체험과 환경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의 이념과 실천 방법을 엮은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등의 책을 써서 환경운동 지도자와 전문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대니서는 1995년 후 케어즈 선정 '올해의 젊은이상'을 받았고, 보통 연로한 사회 저명인사에게 사회에 끼친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유명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인간존엄상'을 받았다. 1996년에는 출판업계에서 뽑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십대'로 선정되었고, 1998년 5월 11일자 '피플'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의 하나로 뽑혔다.

4.국내외청소년환경보전참여사례비교분석

1) 국내외의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 활동 사례 비교

외국의 청소년 환경참여 활동과 국내 청소년 환경참여 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의 <표 Ⅲ-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활동 참여과정과 활성화 정도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외국 청소년들의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활발하게 시작하여 10여 년 이상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온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참여방

식에서도 청소년 개인의 자발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여 소규모집단 또는 단체활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편으로 기존 환경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조직된 활동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은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에 들어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0년대 후반에 참여한 청소년의 환경참여활동 조직들의 경우에도 후원그룹의 관심에 따라 그 활동의 유지와 중단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직은 매우 드물다.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와 환경참여활동에 관심을 갖는 동기도 처음엔 학교봉사활동시간의 환경 자원봉사활동 인정으로 자원봉사점수를 위하여 참여하기 시작했다가 환경사회단체와 연계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학교에서의 활동은 특별활동 시간의 일환으로 환경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환경참여 활동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외국 청소년의 환경참여활동이 관련조직 및 단체와의 네트워킹, 환경정책 의사결정과정 참여 등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아직 캠페인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 청소년의 환경참여활동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지역사회나 학교뿐만 아니라 TV, 매스미디어, 기존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 등과 연계한 입법청원운동, 로비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은 아직은 캠페인이나 환경관련 토론활동,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활동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인 활동으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미래세대소송 참여 등의 활동이 눈에 띄는 활동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환경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제도상의 차이점이다. 지원제도는 크게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과 활동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제인 포

상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참여활동에 대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관련재단 및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환경참여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회를 비교적 많이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의 예산지원이 있으나, 그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내는 회비나 환경단체의 소규모 지원금에 의존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단체를 통해서 정보나 자료, 교육, 장소 등을 지원 받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참여활동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포상하는 사회적 인정제도의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외국의 경우 사례조사로 소개된 대부분의 청소년 환경참여활동도 포상제도를 거쳐 널리 소개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포상제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활동 인정시스템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부처인 환경부나 사회의 교보생명문화재단 환경문화상, 학교, 사회환경단체에서 환경 관련한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수기공모로 자원봉사나 자원절약 등의 소극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넷째, 활동 결과물에서 차이점이 있다. 외국 청소년의 환경참여활동 결과로서 환경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등 환경참여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각종 조직, 매스컴, 다른 관련단체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환경참여활동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은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캠페인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아직은 가시적인 활동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단체 및 다른 청소년 환경관련 단체와의 교류가 미흡하고 청소년의 환경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표Ⅲ-1> 국내외의 청소년 환경참여 활동 비교

구분	외국 청소년의 환경참여활동	국내 청소년의 환경참여활동
활동계기	-자발적 개인 또는 그룹을 형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자치 환경동아리로 발전 -198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에 활발하게 시작하여 10년 이상 지속성이 있는 경우 많음	-신문, 인터넷 통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시작 -처음엔 학교봉사활동시간의 환경 자원봉사 증 인정으로 자원봉사점수를 위하여 참여시작 -학교 통해서 환경사회단체와 연계활동 -대부분 2000년 초에 활동시작
활동방법	-지역사회, 학교, 정책결정자, TV 매스미디어, 기존민간단체, 국제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입법청원운동, 로비활동 등 정책결정 참여 활동 -캠프, 워크숍, 포럼개최, 캠페인	-캠페인, 토론, 조사활동, 견학 및 캠프 -성명서발표, 자원봉사, 환경퍼포먼스 등
주요활동	-지역환경문제조사연구, 모니터링, 청소년 환경포럼, TV대중매체 환경교육활동, 의회로비, 환경지도자훈련, 환경교과서발간 등	-모피옷반대운동, 청소년녹색소비운동,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 청소년사이버환경기자단 활동, 학교중심 녹색소년단 체험학습 등
활동지원	-국가 환경청,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제안해 지원 받음 -관련재단, 개인 기부금 등 -다양한 포상제도를 통한 환경참여활동 장려	-환경민간단체의 지원금 -청소년의 자체의 회비 -청소년대상 포상제도 미흡
활동결과	-관련 환경법안 제정 및 환경보호관련 행정조처를 취함으로써 지역환경 정책결정에 청소년참여 -지역주민, 지역정책입안자, 매스미디어와 연계활동 및 환경교육에 참여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캠페인 활동 중심 -활동성과보다는 활동과정 중심의 캠페인 위주의 활동이 많은 단계 -환경운동단체 및 다른 청소년 환경관련 단체와의 교류미흡 -청소년의 환경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가 거의 없음

2) 사례조사의 시사점

이번 사례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환경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경관련 자생적 청소년 소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환경 참여활동 사례를 찾는 과정에서 당면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환경 참여활동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환경 참여활동, 특히 학교에서의 활동은 CA시간에 교사중심의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환경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들의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단체 등과 청소년들의 자생적인 활동조직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 · 학교 · 사회단체의 청소년 환경참여활동을 포상하는 프로그램(가칭 '청소년 환경상' 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각 학교별로 환경관련 시상이 실행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상이나 환경상 등 교내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청소년 대상은 아니지만, 1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회원 · 지역주민 · 기업 · 개인 · 단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별로 환경상을 개별적으로 시상하고 있다[23]. 또한 사회단체와 정부에서의 교보환경문화재단, 환경부 장관상이 있지만 외국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적 · 단체적 환경활동을 포상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환경 참여활동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단순히 청소년 환경수기 공모나 글짓기나 환경그림대회 등을 통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환경권 의식고취를 위한 '사이버 청소년 환경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

---

23) 예를 들어, 2000년에 녹색연합에서 수여한 '새만금간척사업반대 전북구안사람들의 모임(지역주민)'에서 수상한 "녹색인상"이 있음

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환경과의 관계, 환경문제 및 환경참여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구체적인 환경 참여활동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공간이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세계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 환경 참여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 홈페이지마다 환경관련 활동자료를 올려주거나,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자원봉사 사이트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환경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에서 환경 참여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환경 참여활동은 대부분 학교 특별활동시간이나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봉사활동이나 CA활동은 지속적이지 못한 단기적인 활동이므로, 장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학교내의 환경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청소년 우수환경 프로그램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관한 정책은 주로 환경부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분야의 경우 서울시 등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이 환경분야에서도 청소년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환경 참여사례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 환경동아리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학교 환경동아리는 물론 지역사회의 청소년 환경동아리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청소년 환경동아리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환경동아리, 사회의 환경단체들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공동사업 및 연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부의 환경정책에 청소년 참여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제21을 비롯한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 등에서는 환경관련 정책결정에 청소년참여를 중요한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성인들도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또는 환경참여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분야의 경우 중앙 및 각 지방자치단체, 각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성인들과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이 아직까지 부여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도 각 환경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청소년의 환경보전 의식과 참여실태

1.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표집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과 참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다단계 층화표집에 의한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우선 전국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제8차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13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와 같은 지역(시・도)에 속하는 학교 13개를 선정하였다. 학교의 선정시 응답자의 성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학교와 여학교의 비율을 조정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수는 중학교 13개교(환경교육시범학교 7개교, 일반학교 5개교)와 고등학교 13개교(환경교육시범학교 5개교, 일반학교 7개교)였다. 이들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2개 학급을 선정하였고, 각 학급당 인원수는 평균 30명으로 추정하여 중학생 780명, 고등학생 780명 등 총 1,560명을 조사인원으로 표집하였다. 조사는 2002. 8. 26 ~ 9. 10일 사이에 우편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와 측정방법

이번 조사를 위한 조사도구는 (1) 청소년의 환경관련 의식과 실천영역, (2)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실태 영역, (3) 청소년의 환경권에 관한 의식영역, (4)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방안 영역, (5) 일반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의 환경관련 의식과 실천영역은 환경부(2000)에서 사용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1세기 국민 환경의식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환경관련 주요의견에 대한 공감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환경보전 활

동 실천정도'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청소년의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실태는 청소년이 학교 및 사회에서 환경교육과 환경보전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진에서 개발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교에서의 환경교육경험 7문항, 사회에서의 환경교육 경험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환경권에 관한 의식영역은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무감 그리고 환경권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진에서 개발한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환경보전활동 참여방안영역은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 활동에 관심이 적은 이유를 분석하고 청소년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에 관심이 적은 이유에 관하여 20문항,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에 참여방안 20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별 측정방법은 제시한 각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4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매우 공감 4점, 대체로 공감 3점, 대체로 공감 안함 2점, 전혀 공감안함 1점 등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성별, 학교 및 학년, 학교형태, 거주지역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의 수집은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형태로 추진하였다. 표집을 통해서 선정된 학교와 사전 전화접촉을 통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학급단위로 조사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우편을 통하여 발송한 설문지는 총 1,560부였으며,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515매로 설문지 회수율은 97.05%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코딩을 거쳐서 SPSS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 t-검증, 교차분석, 요인분석, 평균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1,514명이었으며, 이 중 항목별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남자가 56.6%인 851명, 여자가 651명으로 43.4%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748명(49.6%), 고등학생 760명(50.4%)이었고, 학교에서 환경과목 이수경험별로는 42.5%인 641명이 전혀 경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7.5%인 864명이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환경운동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1,045명(69.2%)이 경험이 없다에 응답하였고, 463명(30.8%)이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환경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931명(62.0%)이 경험이 없었고, 38.0%인 569명이 1회 이상 자원봉사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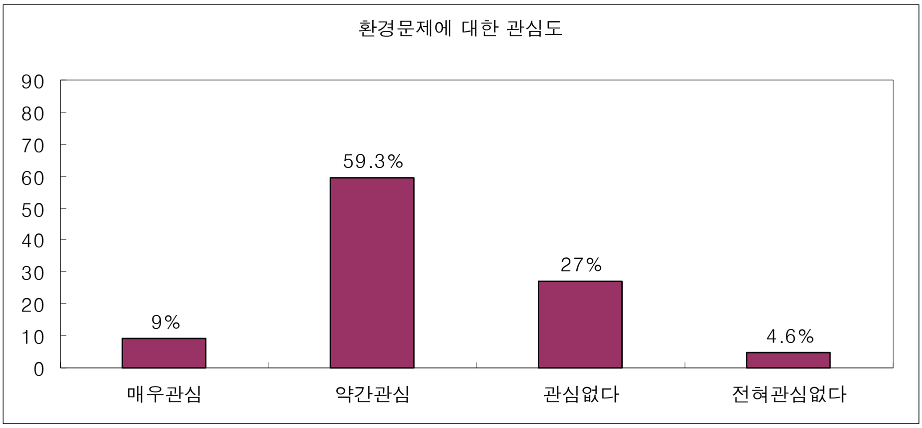
<표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자	비율
계		1,514	100.0
성 별	남자	851	56.6
	여자	651	43.4
교급별	중학생	748	49.6
	고등학생	760	50.4
환경과목 이수 경험	경험없음	641	42.5
	경험있음	864	57.5
사회 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5	69.2
	경험있음	463	30.8
환경관련 자원봉사 경험	경험없음	931	62.0
	경험있음	569	38.0

3. 청소년의 환경보전 인식과 실천

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청소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그림 Ⅳ-1>과 같이 분석되었다. 응답 청소년의 9.0%가 매우 관심 있다에 응답하였고 59.3%가 약간 관심 있다에 응답하여 68.34%만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관심 없다와 전혀 관심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31.6%로 나타났다.



<그림 Ⅳ-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비교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단 간 비교한 t-검증 결과는 <표Ⅳ-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성별, 교급별,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환경교과목 이수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에는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교급별로 볼 때에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

며 모두 통계적인 유의차가 검증되었다.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환경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집단도 경험 없는 집단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학교환경교과목 이수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Ⅳ-2>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768	2.77	.71	2.97**
	여자	627	2.66	.64	
교급별	중학생	692	2.66	.72	-3.36**
	고등학생	708	2.78	.64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02	2.69	.68	1.38(n.s)
	경험있음	797	2.74	.68	
사회환경 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986	2.69	.66	-2.94**
	경험있음	414	2.81	.71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875	2.65	.68	-4.88**
	경험있음	517	2.84	.68	

2)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 대기오염의 심각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Ⅳ-3>과 같았다. 전체적으로 교급과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과 학교 환경과목이수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대기오염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대기오염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성별과 학교환경과목 이수경험 여부, 환경관련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 대기오염의 심각성 인식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응답수</th><th>평균</th><th>표준편차</th><th>t</th></tr>
<tr><td rowspan="2">성별</td><td>남자</td><td>852</td><td>3.40</td><td>.65</td><td rowspan="2">-1.27(n.s)</td></tr>
<tr><td>여자</td><td>650</td><td>3.44</td><td>.58</td></tr>
<tr><td rowspan="2">교급별</td><td>중학생</td><td>747</td><td>3.50</td><td>.60</td><td rowspan="2">4.67**</td></tr>
<tr><td>고등학생</td><td>760</td><td>3.35</td><td>.63</td></tr>
<tr><td rowspan="2">환경과목
이수경험</td><td>경험없음</td><td>641</td><td>3.43</td><td>.65</td><td rowspan="2">0.28(n.s)</td></tr>
<tr><td>경험있음</td><td>863</td><td>3.42</td><td>.60</td></tr>
<tr><td rowspan="2">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td><td>경험없음</td><td>1044</td><td>3.40</td><td>.63</td><td rowspan="2">-2.18*</td></tr>
<tr><td>경험있음</td><td>463</td><td>3.47</td><td>.60</td></tr>
<tr><td rowspan="2">자원봉사경험</td><td>경험없음</td><td>930</td><td>3.41</td><td>.62</td><td rowspan="2">-0.66(n.s)</td></tr>
<tr><td>경험있음</td><td>569</td><td>3.43</td><td>.62</td></tr>
</table>

(2) 수질오염의 심각성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청소년들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Ⅳ-4>와 같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교급별, 학교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여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경험 여부,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수질오염(지하수 오염 포함)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2	3.46	.65	-3.42**
	여자	650	3.57	.57	
교급별	중학생	747	3.52	.62	0.64(n.s)
	고등학생	760	3.50	.62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0	3.54	.63	1.39(n.s)
	경험있음	864	3.49	.61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4	3.51	.63	0.13(n.s)
	경험있음	463	3.51	.60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1	3.50	.62	-0.89(n.s)
	경험있음	568	3.53	.61	

(3) 토양오염의 심각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표Ⅳ-5>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 교급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토양 오염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토양 오염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토양 오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과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토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5> (농약 등에 의한)토양오염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1	3.07	.75	-2.71**
	여자	650	3.17	.66	
교급별	중학생	747	3.21	.74	4.87**
	고등학생	759	3.03	.68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0	3.13	.73	0.73(n.s)
	경험있음	863	3.11	.70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3	3.09	.71	-2.20*
	경험있음	463	3.18	.72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9	3.12	.70	0.00(n.s)
	경험있음	569	3.12	.74	

(4) 소음 및 진동의 심각성

청소년들의 소음 및 진동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표 Ⅳ-6>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성별이나 교급별, 환경과목 이수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이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소음 및 진동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 외 성별이나, 교급별, 환경과목 이수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소음 및 진동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2	3.05	.85	-0.64(n.s)
	여자	650	3.08	.80	
교급별	중학생	747	3.04	.83	-1.06(n.s)
	고등학생	760	3.09	.82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1	3.09	.83	0.93(n.s)
	경험있음	863	3.05	.83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5	3.02	.85	-2.59*
	경험있음	462	3.15	.78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1	3.04	.83	-1.56(n.s)
	경험있음	568	3.11	.83	

(5) 악취의 심각성

악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차이는 아래 <표 Ⅳ-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교급별,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에 따라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악취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악취의 심각성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악취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Ⅳ-7> 악취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0	3.02	.82	-0.57(n.s)
	여자	651	3.04	.77	
교급별	중학생	747	3.09	.79	2.79**
	고등학생	758	2.97	.80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0	3.07	.79	1.61(n.s)
	경험있음	862	3.00	.80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3	3.00	.81	-2.46*
	경험있음	462	3.11	.77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9	3.03	.80	0.02(n.s)
	경험있음	568	3.03	.79	

(6)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교급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밖의 집단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1	3.32	.75	-4.17**
	여자	650	3.47	.69	
교급별	중학생	746	3.44	.74	2.87**
	고등학생	760	3.33	.72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0	3.42	.73	1.42(n.s)
	경험있음	863	3.37	.73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4	3.37	.75	-1.64(n.s)
	경험있음	462	3.43	.70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0	3.38	.72	-0.35(n.s)
	경험있음	568	3.39	.75	

(7) 생활쓰레기 처리의 심각성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집단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표 Ⅳ-9>와 같다. 청소년들의 성별, 환경과목 이수경험에 따라 심각성 인식 정도에 차이를 나타냈으나, 교급별,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급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인식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9> 생활쓰레기 처리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49	3.38	.73	-2.61**
	여자	649	3.48	.69	
교급별	중학생	744	3.43	.72	0.44(n.s)
	고등학생	759	3.42	.71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39	3.47	.71	2.19*
	경험있음	861	3.39	.72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3	3.42	.73	-0.60(n.s)
	경험있음	460	3.44	.67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8	3.41	.74	-1.58(n.s)
	경험있음	567	3.46	.67	

(8) 산업폐기물의 심각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업폐기물 및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0>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산업폐기물과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산업폐기물 및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0> 산업폐기물・유독성 화학물질 처리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48	3.15	.82	-3.43**
	여자	648	3.29	.74	
교급별	중학생	741	3.26	.82	2.09*
	고등학생	760	3.18	.76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0	3.26	.78	1.65(n.s)
	경험있음	858	3.19	.80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2	3.21	.79	-0.83(n.s)
	경험있음	460	3.24	.79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0	3.22	.79	0.45(n.s)
	경험있음	564	3.21	.79	

(9) 해양오염의 심각성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표 Ⅳ-11>와 같이 청소년들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 교급별로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반면,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해양오염에 대해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해양오염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p<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과목 이수경험,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해양오염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2	3.11	.82	-3.39**
	여자	650	3.25	.74	
교급별	중학생	747	3.28	.80	4.99**
	고등학생	760	3.08	.77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1	3.17	.79	-0.01(n.s)
	경험있음	863	3.17	.79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4	3.16	.79	-1.16(n.s)
	경험있음	463	3.21	.79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0	3.16	.80	-0.58(n.s)
	경험있음	569	3.19	.78	

(10)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교급별,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Ⅳ-12>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0	3.46	.73	-0.26(n.s)
	여자	651	3.47	.72	
교급별	중학생	746	3.49	.74	1.29(n.s)
	고등학생	760	3.44	.71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39	3.44	.74	-0.94(n.s)
	경험있음	864	3.48	.71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4	3.45	.73	-1.33(n.s)
	경험있음	462	3.50	.69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9	3.45	.72	-0.56(n.s)
	경험있음	569	3.47	.73	

(11) 식품오염의 심각성

청소년이 인식하는 식품오염(환경호르몬 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교급별에 따른 인식 차이만을 나타냈으며, 성별,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식품오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학교환경과목 이수경험 여부,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식품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어,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식품오염(환경호르몬 등)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0	3.19	.75	-1.58(n.s)
	여자	650	3.25	.73	
교급별	중학생	746	3.27	.75	2.63**
	고등학생	759	3.17	.74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1	3.21	.77	-0.30(n.s)
	경험있음	861	3.22	.72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4	3.20	.75	-1.40(n.s)
	경험있음	461	3.26	.72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0	3.20	.76	-0.99(n.s)
	경험있음	567	3.24	.73	

(12) 환경문제 전반의 심각성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에 따라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나타냈으며, 교급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없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 밖에 교급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환경문제 전반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4> 환경문제 전반의 심각성 인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49	3.25	.69	-2.37*
	여자	648	3.33	.70	
교급별	중학생	744	3.27	.74	-0.63(n.s)
	고등학생	758	3.30	.64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38	3.34	.73	2.49*
	경험있음	861	3.25	.66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0	3.28	.70	-0.78(n.s)
	경험있음	462	3.31	.66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6	3.27	.70	-0.86(n.s)
	경험있음	568	3.30	.68	

4) 환경보전 실천정도

(1) 일회용품 안쓰기

환경보전활동 중 일회용품 안쓰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실천정도를 집단 간 비교한 결과 <표 Ⅳ-15>와 같이 나타났다.

교급별,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라서는 실천정도에 차이를 보인 반면, 성별, 자원봉사경험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적극성을 보였으며, 환경과목 이수경험에서는 학교에서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표 Ⅳ-15> 일회용품 안쓰기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2	2.78	.82	1.34(n.s)
	여자	651	2.73	.70	
교급별	중학생	748	2.85	.79	4.62**
	고등학생	760	2.67	.74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1	2.68	.81	-3.41**
	경험있음	864	2.82	.73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5	2.72	.76	-3.16**
	경험있음	463	2.85	.78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1	2.73	.75	-1.74(n.s)
	경험있음	569	2.80	.80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6>와 같이 나타났다. 교급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실천정도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으나, 성별, 학교 환경과목 이수경험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좀더 적극적인 실천을 보였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좀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성별, 환경과목 이수 경험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6>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2	2.83	.84	-0.20(n.s)
	여자	650	2.84	.77	
교급별	중학생	747	2.90	.83	3.01**
	고등학생	760	2.78	.77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1	2.80	.83	-1.84(n.s)
	경험있음	863	2.87	.79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4	2.79	.80	-3.66**
	경험있음	463	2.95	.80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1	2.79	.80	-2.97**
	경험있음	568	2.92	.81	

(3)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

청소년들의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와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서 실천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Ⅳ-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에 좀더 적극적인 실천을 보였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교급별,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에 따라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7>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0	2.89	.89	0.75(n.s)
	여자	649	2.86	.81	
교급별	중학생	745	2.91	.87	1.78(n.s)
	고등학생	759	2.83	.84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0	2.84	.88	-1.35(n.s)
	경험있음	861	2.90	.84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2	2.84	.87	-2.24*
	경험있음	462	2.95	.81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9	2.82	.87	-3.41**
	경험있음	567	2.97	.82	

(4) 세탁, 설거지, 목욕시 저공해 세제 이용

청소년들의 저공해 세제 이용 실천정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Ⅳ-18>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 교급별,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p<.01$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탁, 설거지, 목욕시 저공해 세제 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집단을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에 따른 비교에서도 이수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수경험 없는 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과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러지 않은 학생들보다 저공해 세제 이용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세탁, 설거지, 목욕시 저공해 세제 이용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49	2.53	.92	2.77**
	여자	651	2.41	.87	
교급별	중학생	746	2.55	.93	2.96**
	고등학생	759	2.41	.86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39	2.39	.89	-3.30**
	경험있음	863	2.55	.90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4	2.39	.89	-5.99**
	경험있음	461	2.69	.89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9	2.43	.91	-2.79**
	경험있음	568	2.56	.89	

(5) 수돗물 아껴쓰기

수돗물 아껴쓰기 실천에 관해 청소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교급별,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참여경험, 자원봉사경험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수돗물을 더 아껴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p< .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 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수돗물을 아껴쓰는데 더 적극적이었으며,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있는 학생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 유의수준 $p<.01$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Ⅳ-19> 수돗물 아껴쓰기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1	2.72	.93	-2.21*
	여자	647	2.82	.86	
교급별	중학생	745	2.88	.91	4.78**
	고등학생	758	2.66	.88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38	2.69	.91	-2.82**
	경험있음	862	2.82	.90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1	2.70	.90	-4.35**
	경험있음	462	2.92	.88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8	2.70	.91	-3.52**
	경험있음	567	2.87	.88	

(6) 승용차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천정도에 대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성별, 교급별,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이수경험 여부와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보인 환경과목 이수경험과 자원봉사 참여경험에서는 둘 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승용차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성별, 교급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어, 승용차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천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승용차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1	3.08	.93	0.48(n.s)
	여자	650	3.06	.87	
교급별	중학생	746	3.06	.92	-0.71(n.s)
	고등학생	760	3.09	.88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1	3.02	.93	-2.06*
	경험있음	862	3.12	.87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5	3.06	.91	-0.98(n.s)
	경험있음	461	3.11	.89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1	3.01	.91	-3.59**
	경험있음	567	3.18	.88	

(7) 자연환경 훼손 방지

자연환경 훼손 방지 활동 실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Ⅳ-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환경과목 이수경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자원봉사 경험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수준 p<.01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교급별 구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나타낸 집단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연환경 훼손 방지 실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자연환경 훼손 방지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52	2.93	.82	0.84(n.s)
	여자	651	2.90	.76	
교급별	중학생	748	2.88	.83	-1.92(n.s)
	고등학생	760	2.96	.75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41	2.85	.83	-2.95**
	경험있음	864	2.97	.75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45	2.88	.79	-2.90**
	경험있음	463	3.01	.77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31	2.86	.80	-3.69**
	경험있음	569	3.01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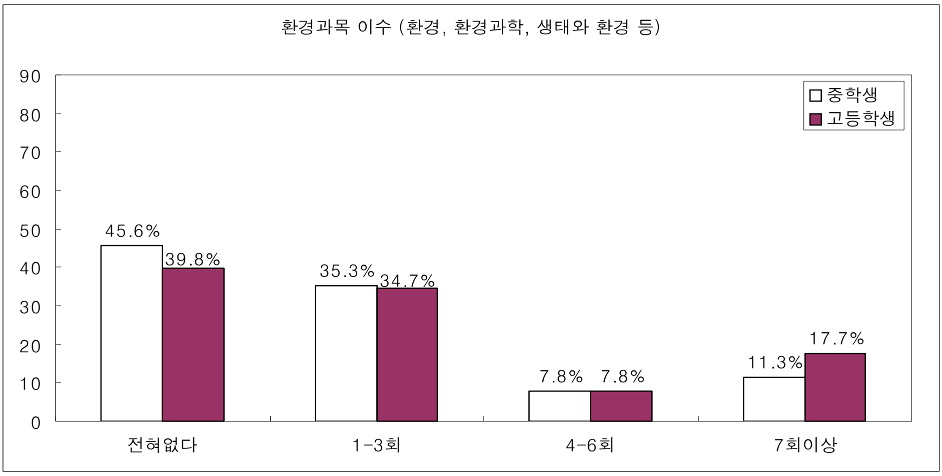
4.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실태

1)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참여

(1) 환경과목의 이수

청소년들의 환경과목 이수경험을 살펴보면, <그림Ⅳ-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45.8%가 환경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은 39.8%가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목을 1회 이상 이수한 경험은 중학생의 경우 54.4%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60.2%로 응답하여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환경교육 교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목을 이수한 경험을 보면 중학생의 35.5%와 고등학생의 34.7%가 1-3회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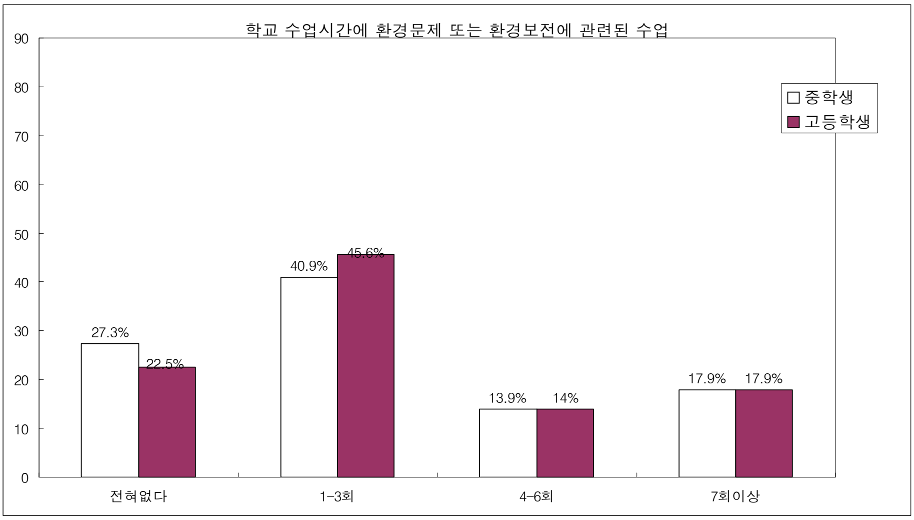
<그림 Ⅳ-2> 환경과목 이수

(2) 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에 관련된 수업

학교 수업시간에 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에 관련된 수업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27.3%와 고등학생의 22.5%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환경교육 수업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시간에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은 중학생이 72.7%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77.5%로 고등학생의 경험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에 관련된 수업을 받은 횟수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40.9%가 1-3회에 응답하였고 17.9%가 7회 이상, 13.9%가 4-6회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의 45.6%가 1-3회의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7회 이상이 17.9%, 4-6회가 14.0%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중고등학교의 여러 교과의 내용에 환경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어 사회과목이나 과학과목을 중심으로 도덕, 실업, 국어교과 등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중학생의 27.3%, 고등학생의 22.5%가 학교 수업시간에 환경관련 수업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환경과목이 아닌 관련 교과의 일부분으로 수행되는 수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환경교육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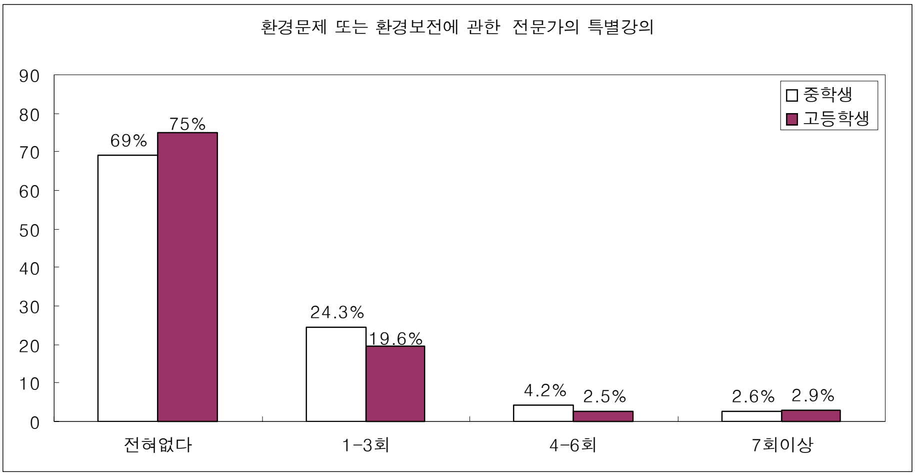


<그림 Ⅳ-3>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 관련 수업

(3) 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 전문가 특별강의

학교에서 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가의 특별강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등학생의 75%, 중학생의 69%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여, 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전문가의 특별강의를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전문가 특별강의를 1회 이상 받은 학생은 중학생이 31.1%, 고등학생이 25%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에서 환경문제나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가의 특별강의를 받아본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전문가의 특별강의를 받은 횟수는 1-3회로 응답한 학생이 중학생의 경우는 24.3%, 고등학생의 경우는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에서의 환경문제나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가 특별강의는 1-3회 정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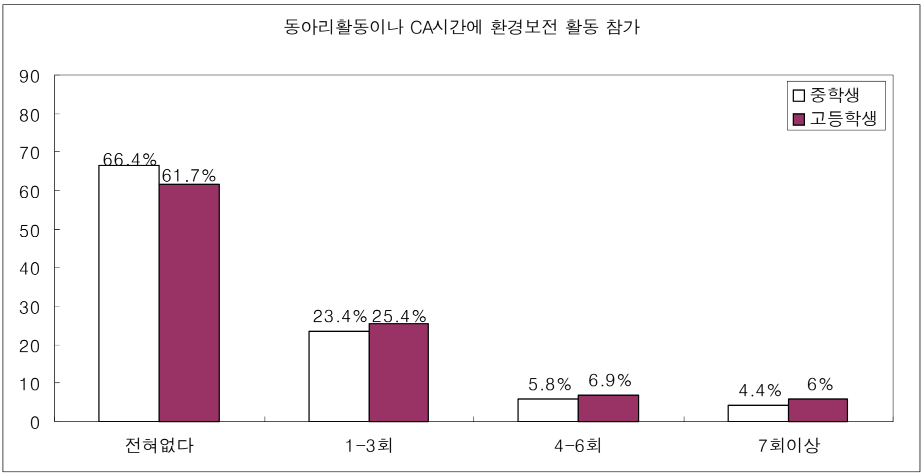


<그림 Ⅳ-4>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 전문가 특별강의

(4) 동아리나 CA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동아리나 CA시간에 환경보전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중학생의 66.4%, 고등학생의 61.7%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의 동아리나 CA시간에 1회 이상 환경보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중학생이 33.6%, 고등학생이 38.3%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동아리나 CA시간에 환경보전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나 CA시간에 환경보전 활동에 참가한 횟수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23.4%, 고등학생의 경우 25.4%가 1-3회 정도의 참가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4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학생이 10.2%, 고등학생이 12.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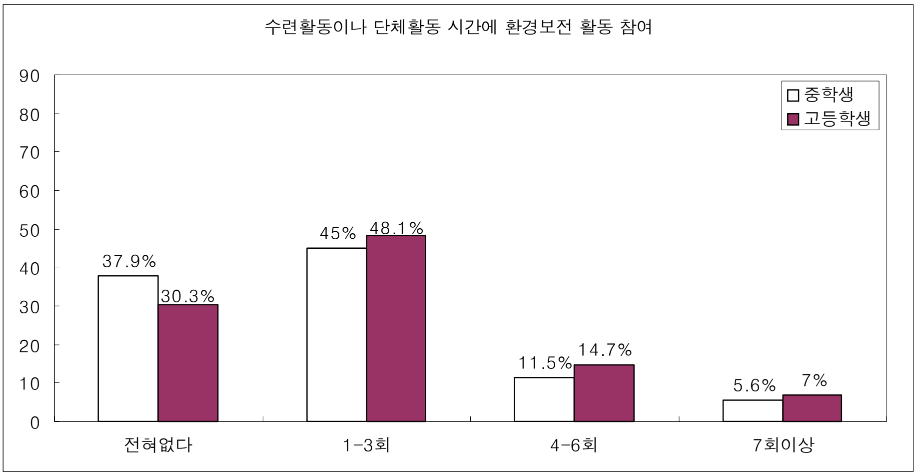


<그림 Ⅳ-5> 동아리나 CA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5) 수련 또는 단체활동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학교에서의 수련활동이나 단체활동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3회 정도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중학생의 경우 45%, 고등학생의 경우 48.1%로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수련활동이나 단체활동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에 1-3회 정도 참여한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련활동이나 단체활동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참여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중학생이 37.9%, 고등학생이 30.3%로 나타났다. 1회 이상 수련활동이나 단체활동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학생이 62.1%, 고등학생이 69.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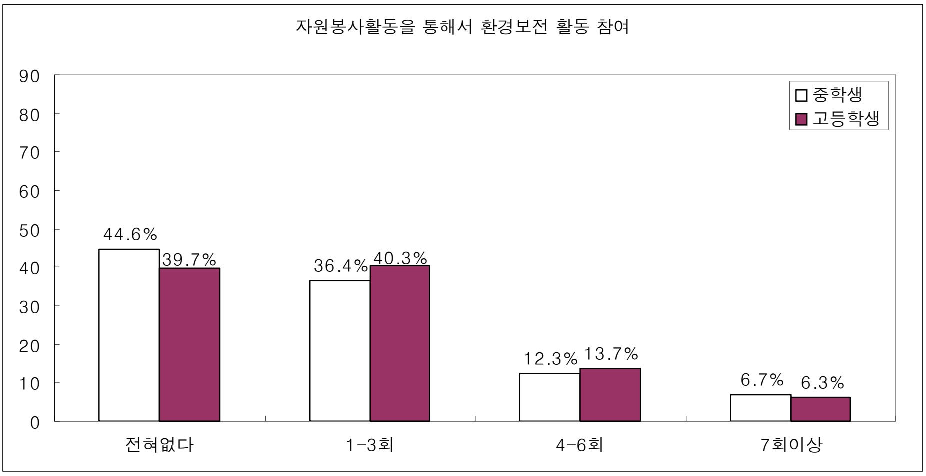


<그림 Ⅳ-6> 수련이나 단체활동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6)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

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중학생의 경우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4.6%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1-3회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40.3%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등학생이 60.3%, 중학생이 55.4%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회 이상 참여한 경험은 중학생이 6.7%, 고등학생이 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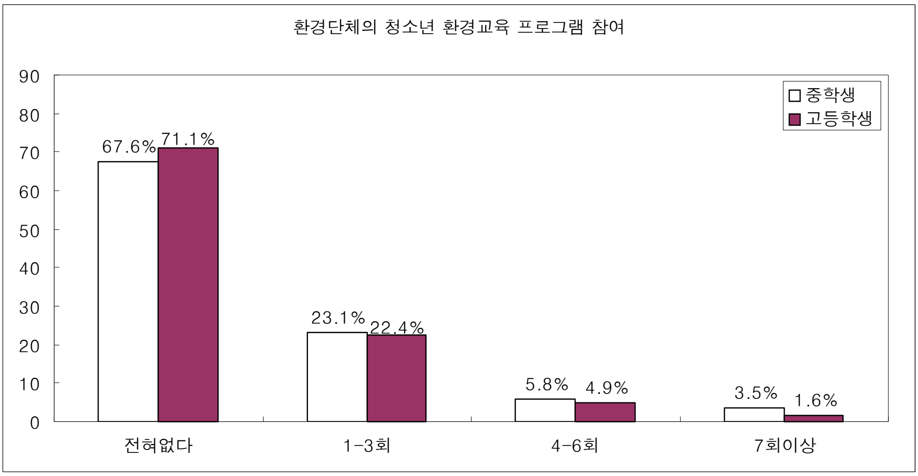
<그림 Ⅳ-7>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

2) 사회에서의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참여

(1) 환경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사회에서의 환경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중학생은 67.6%, 고등학생은 71.1%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환경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환경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보면, 1-3회의 참여경험이 중학생은 23.1%, 고등학생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6회 참여한 학생은 중학생이 5.8%, 고등학생이 4.9%로 나타났고, 7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이 3.5%, 고등학생이 1.6%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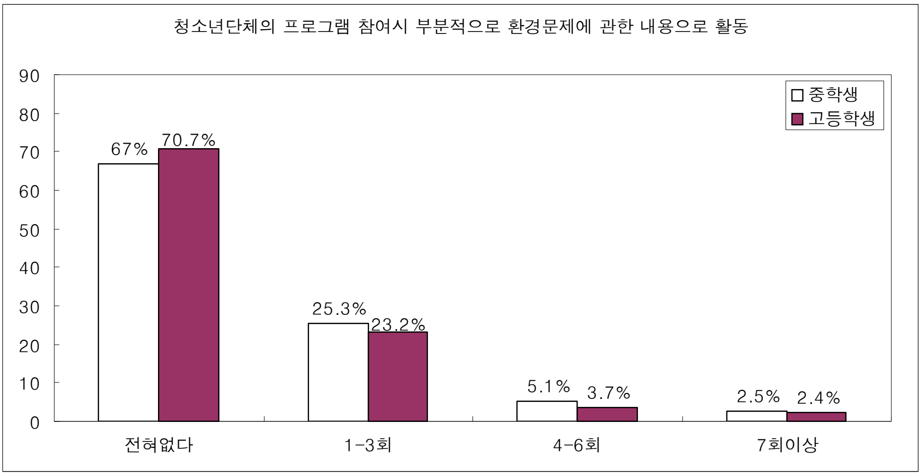


<그림 Ⅳ-8> 환경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

(2)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참여시 부분적으로 환경문제 관련 활동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의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 중 전체 중학생의 67%, 전체 고등학생의 70.7%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환경문제 관련 활동 참여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1회 이상의 경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중학생이 32.9%, 고등학생이 29.3%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1-3회의 참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중학생은 25.3%, 고등학생은 2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1-3회의 정도의 활동 참여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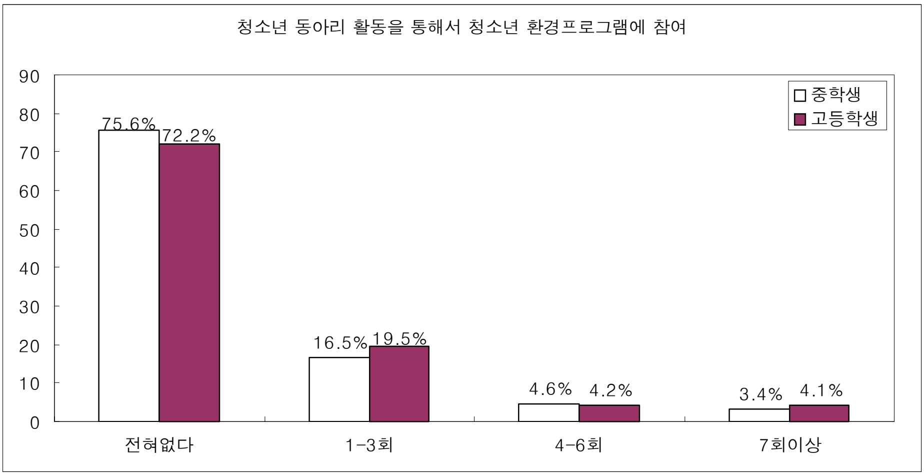


<그림 IV-9>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참여시 부분적으로 환경문제 관련 활동

(3) 동아리 활동을 통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사회에서의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통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Ⅳ-10>과 같이 나타났다. 중학생의 75.6%, 고등학생의 72.2%로가 사회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환경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학생이 24.5%, 고등학생이 27.8%에 불과했고, 이 중 4회 이상의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중학생은 8.2%, 고등학생은 8.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 환경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낮고, 지속적인 참여도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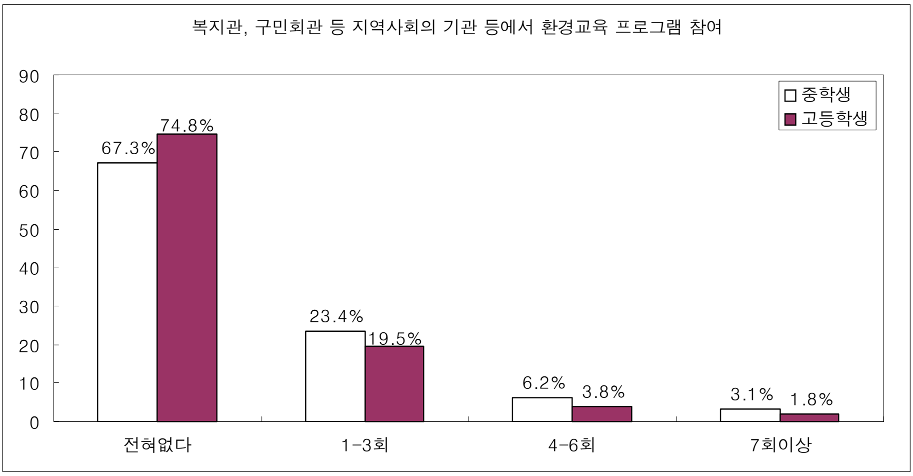


<그림 Ⅳ-10>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4) 지역사회기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복지관이나 구민회관 등 지역사회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중학생의 경우 67.3%, 고등학생은 74.8%가 지역사회기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이 32.7%, 고등학생이 25.1%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지역사회 기관 등을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1-3회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4%, 4-6회 참여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6.2%, 7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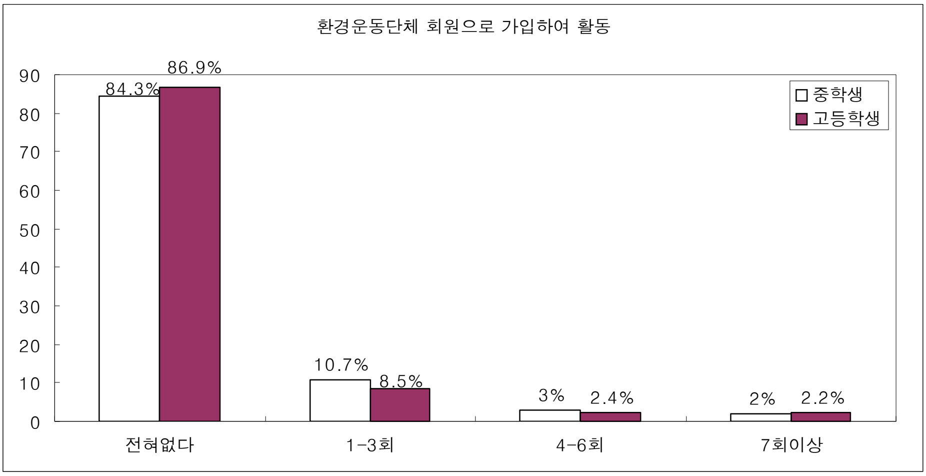


<그림 Ⅳ-11> 지역사회기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5) 환경운동단체 회원으로 활동

청소년들이 환경운동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전체 중학생 중 84.3%, 고등학생 중 86.9%가 전혀 활동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80%이상의 학생들이 환경운동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의 활동경험은 중학생이 15.7%, 고등학생이 13.1%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1-3회 정도의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중학생은 10.7%, 고등학생은 8.5%로, 4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학생 5%, 고등학생 4.6%보다 더 높게 나타나, 환경운동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 횟수는 1-3회 정도의 참여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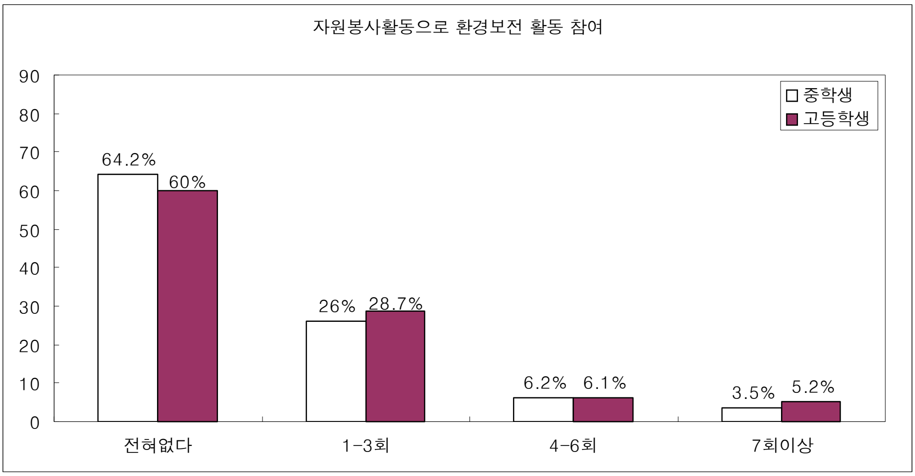


<그림 Ⅳ-12> 환경운동단체 회원으로 활동

(6)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보전 활동

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보전 활동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64.2%가 활동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은 60%가 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경우는, 중학생이 35.7%, 고등학생이 40%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1회 이상 참여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6회 정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이 6.2%, 고등학생이 6.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7회 이상 참여한 경우는 중학생이 3.5%, 고등학생이 5.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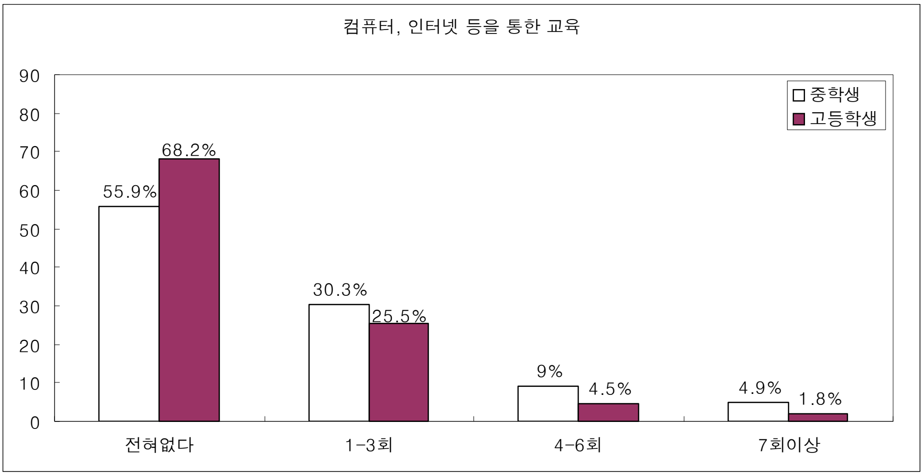


<그림 Ⅳ-13>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보전 활동

(7)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환경관련 교육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환경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중학생의 55.9%. 고등학생의 68.2%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1회 이상 환경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학생의 경우 44.2%, 고등학생의 31.8%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환경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횟수를 살펴보면, 1-3회가 중학생은 30.3%, 고등학생은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을 1-3회 정도 받은 학생이 4회 이상 받은 학생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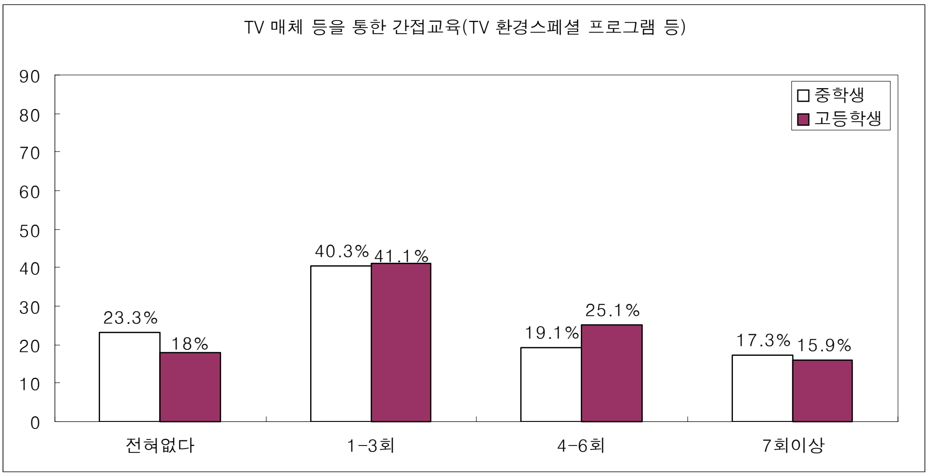


<그림 Ⅳ-14>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환경관련 교육

(8) TV매체 등을 통한 환경관련 간접교육

TV매체 등을 통해 방영되는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환경에 대한 간접교육을 1회 이상 경험한 학생은 중학생의 경우는 76.7%, 고등학생의 경우는 82.1%로 나타나, TV매체 등을 통한 환경관련 간접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보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매체 등을 통한 환경관련 간접교육의 횟수를 살펴보면, 1-6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학생이 전체의 59.4%, 고등학생이 전체의 66.2%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7회 이상 간접교육을 받은 경험은 중학생이 17.3%, 고등학생이 15.9%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TV매체 등을 통해 7회 이상 환경관련 간접교육을 받은 경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5> TV매체 등을 통한 환경관련 간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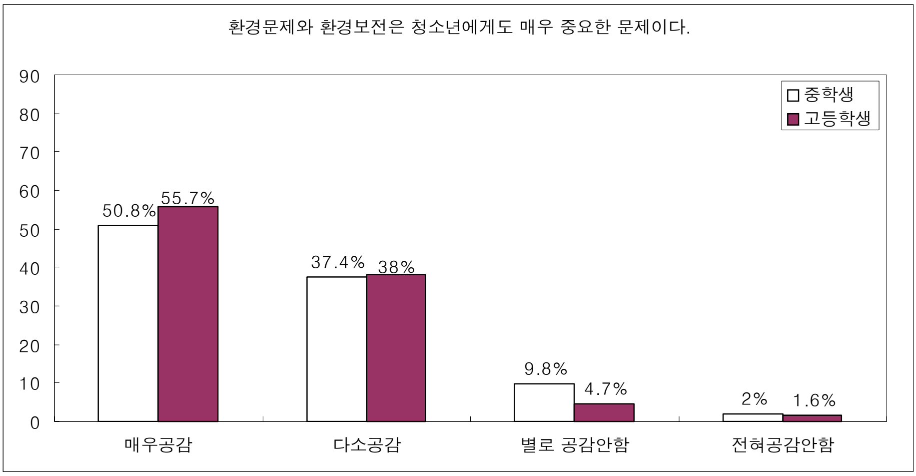
5. 청소년의 환경권에 관한 의식

1) 환경권에 관한 의식

(1)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은 청소년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학생의 경우 88.2%, 고등학생의 경우 93.7%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대체로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도 중학생의 경우 50.8%, 고등학생의 경우 5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별로 공감 안 하거나 전혀 공감 안 한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11.8%, 고등학생이 6.3%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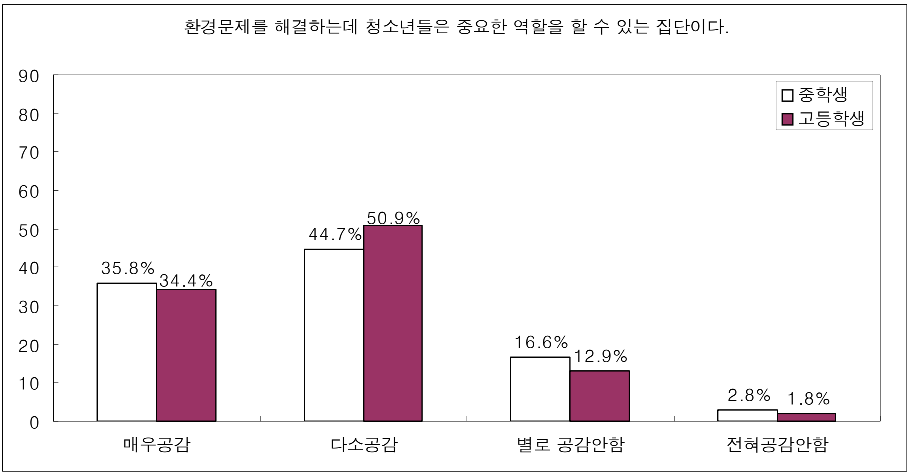


<그림 Ⅳ-16>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중요성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에 공감하는 학생은 중학생의 경우 80.5%, 고등학생의 경우 85.3%로 나타났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35.8%, 고등학생이 34.4%로 나타났고, 다소 공감한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44.7%, 고등학생이 50.9%로 나타났다. 별로 공감 안 한다는 의견은 중학생의 경우 16.6%, 고등학생의 경우 12.9%로 나타났으며, 전혀 공감 안 한다는 의견도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청소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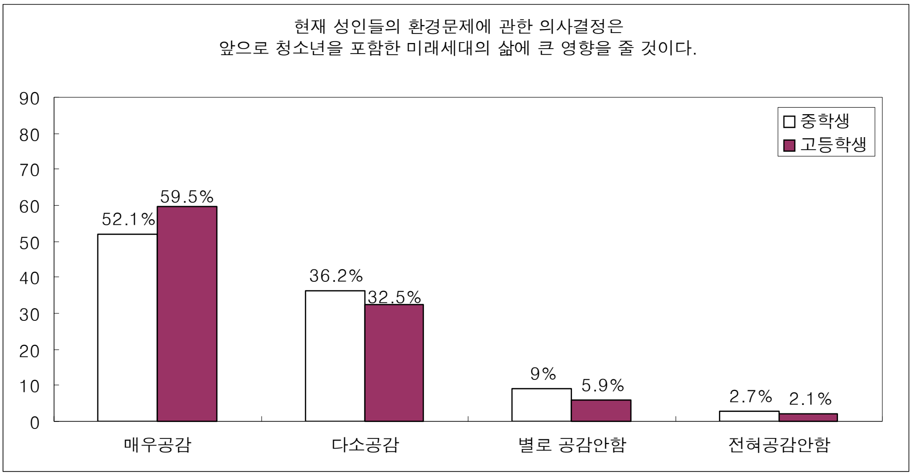


<그림 Ⅳ-17>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중요성

(3) 환경문제 의사결정이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현재 성인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앞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는 88.3%, 고등학생의 경우는 92%의 많은 학생들이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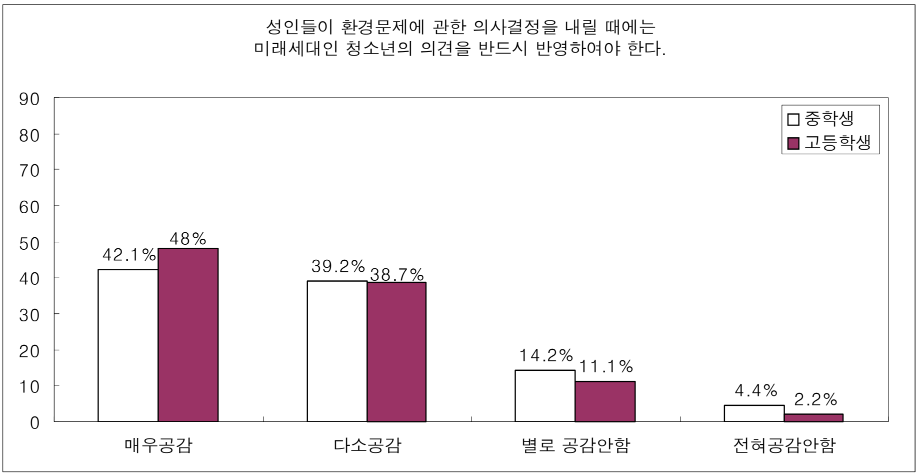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학생이 52.1%, 고등학생이 59.5%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매우 공감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별로 공감 안 하거나 전혀 공감 안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이 11.7%, 고등학생이 8%에 불과해, 청소년들은 현재 환경문제에 관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이 앞으로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8> 환경문제 의사결정이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력

(4) 환경문제 의사결정시 청소년 의견 반영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중학생의 42.1%, 고등학생의 48%가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하였고, 중학생의 39.2%, 고등학생의 38.7%가 다소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에서 중학생의 경우 81.3%, 고등학생의 경우 86.7%를 차지하여,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위의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환경문제 의사결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별로 공감 안 한다와 전혀 공감 안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1.1%, 2.2%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는 각각 14.2%, 4.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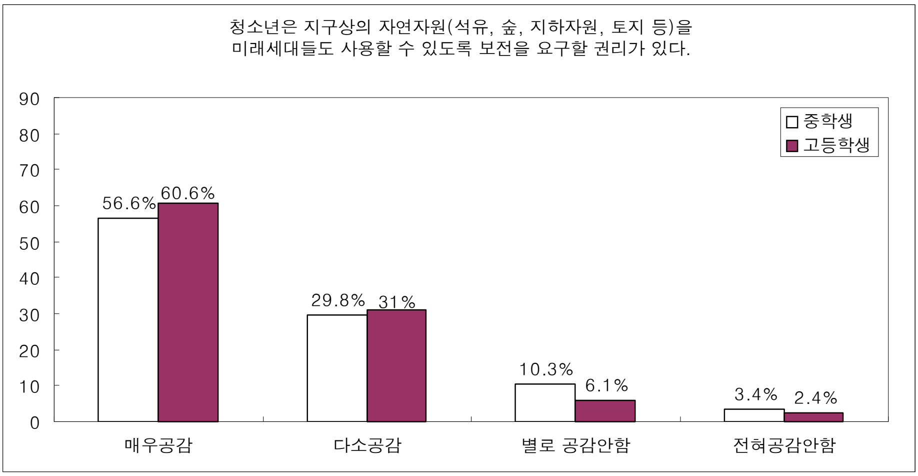


<그림 Ⅳ-19> 환경문제 의사결정시 청소년 의견 반영

(5) 청소년들의 자연자원 보전 요구에 대한 권리

청소년들은 지구상의 자연자원(석유, 숲, 지하자원, 토지 등)을 미래세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중 중학생의 56.6%와 고등학생의 60.6%가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소 공감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중학생은 29.8%, 고등학생은 31%로 나타나, 85%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연자원 보전을 요구할 권리가 청소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의견을 비교해 보면, 중학생은 전체의 86.4%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은 91.6%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환경보전을 요구할 권리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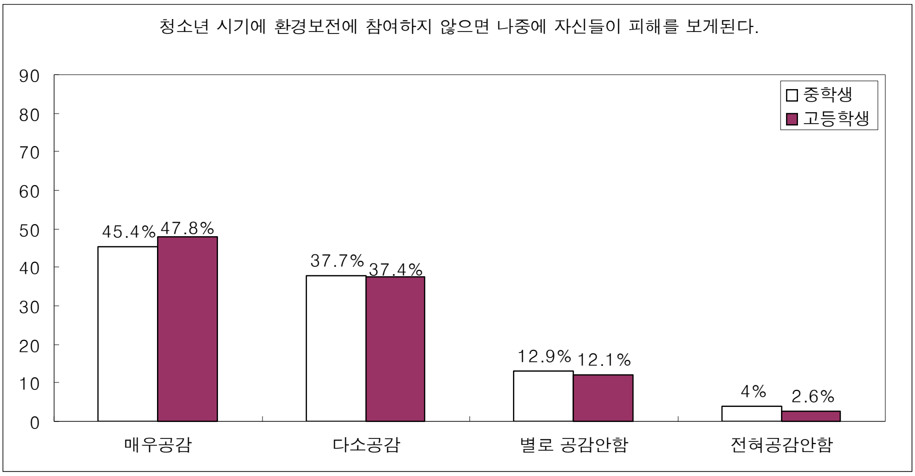


<그림 Ⅳ-20> 청소년들의 자연자원 보전 요구에 대한 권리

(6) 청소년시기의 환경보전 참여와 결과

청소년 시기에 환경보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식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학생의 83.1%, 고등학생의 85.2%가 매우 공감하거나 다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소년 시기의 환경보전 참여가 앞으로의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학생이 45.4%, 고등학생이 47.8%로 나타났고, 별로 공감 안 한다는 의견은 중학생이 12.9%, 고등학생이 12.1%, 전혀 공감 안 한다는 의견은 중학생이 4%, 고등학생이 2.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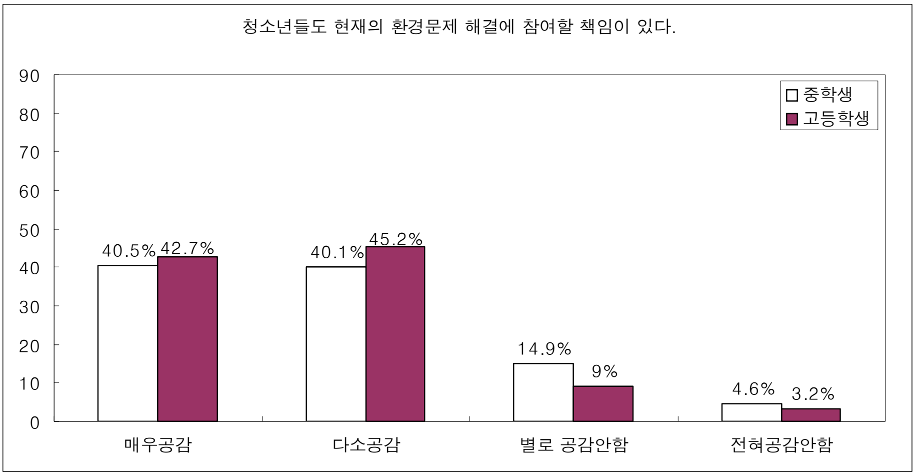


<그림 Ⅳ-21> 청소년시기의 환경보전 참여와 결과

(7)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책임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도 참여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식에 대해 중학생은 80.6%, 고등학생은 87.9%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은 대체로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공감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 중 다소 공감한다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공감이 42.7%, 별로 공감안함이 9%, 전혀 공감안함이 3.2%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 중 매우 공감이 40.5%, 다소 공감이 40.1%, 별로 공감안함이 14.9%, 전혀 공감안함이 4.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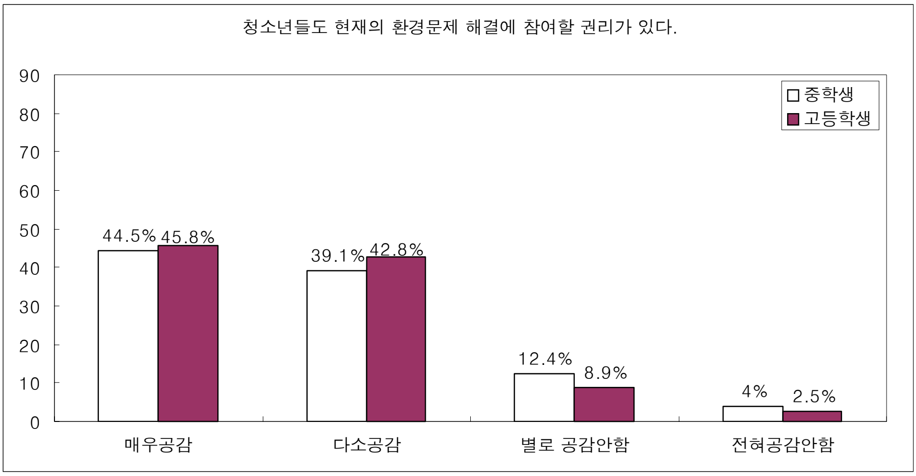


<그림 Ⅳ-22>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책임

(8)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권리

청소년들도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의견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매우 공감하거나 다소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83.6%를 차지하였으며, 별로 공감 안 하거나 전혀 공감 안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견의 16.4%를 차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공감하거나 다소 공감한다는 의견은 88.6%로 높게 나타났으며, 11.4%의 학생만이 별로 공감 안 하거나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도 중학생은 44.5%, 고등학생은 45.8%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의식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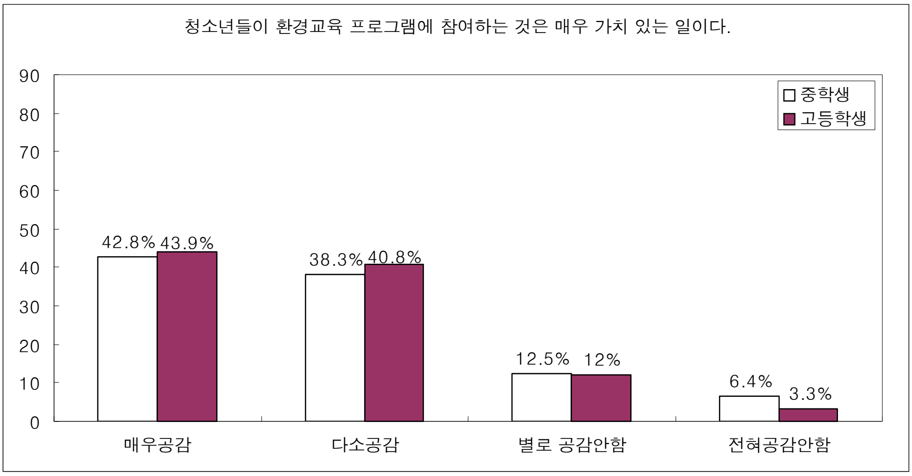


<그림 Ⅳ-23>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권리

(9) 청소년들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가치

청소년들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 중학생의 81.1%, 고등학생의 84.7%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 중 80% 이상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중학생이 42.8%, 고등학생이 43.9%로 고등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다소 공감한다는 의견도 중학생이 38.3%, 고등학생이 40.8%로 고등학생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별로 공감 안 하거나 전혀 공감 안 한다는 의견은 중학생의 경우 전체의 18.9%, 고등학생의 경우 15.3%로 나타났다.



<그림 Ⅳ-24> 청소년들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가치

2) 청소년의 환경권의식에 관한 t검증

청소년의 환경권 관련문항을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 분석방식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표Ⅳ-22>와 같이 9개의 설문문항이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 요인을 "청소년의 환경권 의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s)는 4.57이었고 전체분산은 50.781로 나타나 이 요인으로 전체변량의 50.7%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척도의 신뢰도는 0.877로 분석되었다.

<표Ⅳ-22> 청소년의 환경권 관련 문항의 요인분석

환경권 관련 설문문항	요인 I
1. 청소년들도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781
2. 청소년들도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761
3. 청소년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736
4. 현재 성인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앞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717
5. 지구상의 자연자원(석유, 숲, 지하자원, 토지 등)은 미래세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06
6. 환경문제는 청소년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696
7. 청소년 시기에 환경보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된다.	.689
8.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소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672
9. 성인들이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644

청소년의 환경권 의식에 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Ⅳ- 23>와 같았다. 교급별, 환경과목 이수경험 여부,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자원봉사 참여경험 여부에 따라서 환경권 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별로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환경권 의식의 차이를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환경권의식 점수가 고등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환경권 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환경단체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인 유의차가 검증되었다. 환경관련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분석되었는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집단의 환경권 의식이 경험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Ⅳ-23> 청소년의 환경권 의식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837	29.59	4.97	-1.22(n.s)
	여자	645	29.91	4.91	
교급별	중학생	743	29.36	5.12	-2.96**
	고등학생	753	30.1	4.74	
환경과목 이수경험	경험없음	632	29.28	5.37	-3.02**
	경험있음	854	30.08	4.58	
사회환경 교육 참여경험	경험없음	1,037	29.51	5.10	-2.84**
	경험있음	453	30.30	4.51	
자원봉사경험	경험없음	920	29.34	5.22	-4.11**
	경험있음	562	30.38	4.40	

6.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1) 청소년의 환경문제 무관심의 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Ⅳ-24>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원인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청소년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청소년 권리에 대한 무관심', '사회에서 환경교육 부족', '학교에서 환경교육 부족',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므로', '청소년지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24> 청소년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원인

구 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청소년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청소년 권리에 대한 무관심	1510	3.09	.82
2. 사회에서 환경교육이 부족	1514	3.04	.77
3.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부족	1514	2.98	.80
4.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	1505	2.97	.90
5. 청소년지도자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흡	1487	2.95	.82

* 매우공감 4점, 약간공감 3점, 약간공감안함 2점, 전혀공감안함 1점으로 계산하였으며 평균점수의 범위는 최대 4점, 최소 1점임.

2)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 방안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Ⅳ-25>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참여', ' 자원절약습관 익히

기',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자동차이용자제', '환경친화적 물품구매', '환경오염 및 훼손현장 발견시 신고', '환경보전관련 자원봉사' 등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년 참여방안

구 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1.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	1509	3.36	.84
2. 일상생활에서 자원절약 습관 익히기	1509	3.34	.81
3.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1508	3.16	.88
4. 등하교시 자동차 이용을 되도록 줄이고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	1512	3.13	.93
5. 환경친화적 물품 구매하기	1505	3.08	.88
6. 환경오염 및 훼손 현장 발견시 신고하기	1512	3.07	.87
7. 환경보전 관련한 봉사활동 참여하기	1507	3.03	.84
8.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1504	3.01	.88
9.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참여하기	1506	2.97	.88
10. 사이버 상의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1512	2.87	.91

* 매우공감 4점, 약간공감 3점, 약간공감안함 2점, 전혀공감안함 1점으로 계산하였으며 평균점수의 범위는 최대 4점, 최소 1점임.

7. 결과요약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과 환경참여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고등학생 1,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59.3%가 약간 관심있다에 응답하였고, 매우 관심있다에 9%가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68.3%가 환경문제에 관심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27.0%는 관심없다에 전혀 관심없다에는 0.9%가 응답하였다. 2000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매우 관심있다에 30.9%, 약간 관심있다에 57.9%가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88.8%가 관심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학교에서 환경과목 이수경험과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환경관련 자원봉사 경험 등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과목 이수경험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처리, 환경문제 전반의 심각성 등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생활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 전반의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별로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관련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실천정도에 대한 환경과목 이수경험,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 환경관련 자원봉사 경험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환경과목 이수경험을 보면,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일회용품 안쓰기, 저공해 세제사용, 수돗물 아껴쓰기, 대중교통이용, 자연환경 훼손 방지 등을 더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과 관련하여,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일회용품 안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 저공해 세제사용, 수돗물 아껴쓰기, 자연환경 훼손 방지 등의 실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재활용, 저공해 세제사용, 수돗물 아껴쓰기, 대중교통 이용, 자연환경 훼손방지 등에서 더 적극

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경험을 보면 환경과목 이수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중학생 45.6%, 고등학생 39.8%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시간에 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에 관련된 수업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은 중학생 27.3%, 고등학생 22.5%로 나타났다. 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가의 특별강의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비율은 중학생 69%, 고등학생 75%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에서의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경험을 보면, 사회에서 환경단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중학생의 경우 67.6%, 고등학생은 71.1%로 나타나 대부분 사회환경교육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환경권 의식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환경과목 이수경험자, 사회환경교육 참여경험자, 환경관련 자원봉사 경험자의 환경권 의식 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환경관련 교육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환경권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에 관심이 적은 이유는 ‘청소년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청소년 권리에 대한 무관심’, ‘사회에서 환경교육 부족’, ‘학교에서 환경교육 부족’, ‘청소년들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므로’, ‘청소년지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방안으로는 청소년들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참여’, ‘ 자원절약습관 익히기’,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자동차이용 자제’, ‘환경친화적 물품구매’, ‘환경오염 및 훼손현장 발견시 신고’, ‘환경보전관련 자원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성인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원인으로 청소년 스스로 환경권을 비롯한 권리에 대한 무관심, 사회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부족 등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개발중심의 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사업들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학교 환경교육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보전 실천정도 등은 학교의 환경과목 이수경험보다는 사회환경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환경교육이 학교의 교과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비하여 사회환경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은 관심있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학교수업보다는 사회환경 교육이 전문가에 의한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환경교육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특별수업 및 특강, 외부 환경단체 등과 연계한 수업 등 수업의 전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의 67.6%, 고등학생의 71.1%가 환경단체의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으며, 청소년단체의 활동에서도 부분적으로라도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을 접하지 못한 비율이 중학생 67.0%, 고등학생 70.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환경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환경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환경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학교 및 사회에서 청소년 환경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환경권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여부도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천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권을 청소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보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환경보전활동을 청소년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활용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참여방안으로 제시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방법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및 훼손현장 발견시 신고하기'를 일생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자료집을 제작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발전 방안

1. 청소년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의 문제점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환경정책, 환경운동, 환경교육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환경보전은 이제 모든 국민의 공동선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로서 확고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학교 환경교육 및 참여활동의 문제점

많은 환경교육자들은 환경교육에 청소년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고 참여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수준의 참여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종합적인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발전 계획’의 부재

지금까지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ㆍ홍보 종합계획」과 같이 교육계획을 갖고 있으나 참여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지 못하다.

(2) 형식적인 교육과 참여

환경교육의 중요한 특징인 정의성과 통합성이 학교 환경교육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과학에 대한 지식전달 위주의 환경교육은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와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교육이 다른 과목 교육과 같이 하나의 과목에 그치고 참여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3) 전문가의 부족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통해 가치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사와 전문가의 양성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환경교육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연수와 교사의 참여활동이 필요한 데 단기간에 걸친 교사 연수프로그램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창의적인 교육과 참여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환경시범학교, 체험환경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수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어렵다.

(5) 환경보전 참여활동 학교 네트웍의 부재

환경보전 참여활동이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성공과 실패 경험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실천하는 학생, 교사, 전문가 등이 경험을 공유하는 온 라인, 오프라인 네크웍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예산지원의 부족

환경부의 환경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참여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부족한 형편이다. 청소년 환경교육이 갖는 사전예방적인 정책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환경교실’과 같은 정책을 확대

하여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보다 종합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7) 평가 프로그램를 통한 지원시스템의 부족

체험 환경교육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으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교육 성과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부족하다. 앞으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참여활동의 부족

가장 바람직한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단순히 쓰레기 줍기, 청소하기를 청소년들에게 시켜서 활동의 의미를 지역 공동체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찾고 이를 참여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의 문제점

(1)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지원의 부족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그 단체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있다. 운동단체의 동아리 모임으로 청소년 모임이 드물게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경단체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운동단체의 지속성 없는 교육과 참여활동

많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나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연을 체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일회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3) 재원의 부족

우리나라 환경운동단체는 대부분 그 재정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참여활동의 참여자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원 부족 문제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참여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낳는다.

(4) 전문가의 부족

환경운동단체의 참여 프로그램의 지도자는 대개 생태 전문가, 교수, 운동단체 상근자들이다. 이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참여를 알차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 지도 전문가를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5) 교육, 참여 공간 및 자원의 부족

참여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참여 공간, 교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자원은 매우 부족하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다. 특히 야외 참여활동의 경우 교육관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6) 평가 프로그램 및 네트워의 부재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이 분산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 많은 프로그램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집적되지 못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또한 여러단체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도 부족한 형편이다.

2.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발전 방향

1)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비전과 목표, 전략

청소년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체이자 두 세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인 주체인 청소년이 자신들과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해 환경보전활동과 그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학교 환경교육 부문에서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학교 환경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환경과목 교육, 재량활동 시간 등 가용한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회 환경교육을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발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자체가 피교육자의 태도와 가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참여활동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기업의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자이다. 따라서 기업은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원기금' 등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직접 참여활동을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대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이 환경과 사회발전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학교,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환경보전의 주체이자 그 주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집단들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기본 방향

(1) 지구와 나의 관계를 성찰하는 '문제 중심의 참여활동'

기존의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 형식적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불러 일으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로운 참여활동은 쓰레기, 소음, 자동차 매연과 기후변화 등 나의 행위와 지구의 미래의 관계를 성찰하는 문제 중심의 참여활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생태 중심의 참여활동

"알면 사랑한다"라는 생태학자의 말처럼 자연 생태계에 대한 탐구 참여활동은 나와 자연에 대한 우주적인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최근 환경단체, 학교 등 다양한 조직에서 갯벌 체험, 생태 체험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환경교육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발적인 생태 연구와 보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생활 중심의 참여활동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아무런 매력이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생활주변의 환경문제를 자기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환경보전의 주체로 참여할수 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 소각이 가져오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저 "깨끗이 태워버리는 행위"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대기오염을 불러 일으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나 혹은 나 아닌 우리 공동체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인식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을 벌일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물 절약,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등 생활 속의 환경문제는 우

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4)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활동

청소년은 비슷한 또래이지만 그들의 생활세계는 크게 다르다. 도시의 청소년과 농·어촌의 청소년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그 지역에 적합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 민주주의 체험의 참여활동

엘리트주의적인 환경보전론자들은 대중을 이기적인 존재로만 보고 그들을 지배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환경 독재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에 자발적이고 참여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미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 사이버 참여활동

앞으로 인테넷 등 새로운 매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동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7) 소비자 주권 참여활동

소비자로서 청소년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환경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청소년은 소비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파괴적인 생산기업에 대한 경고, 불매운동, 녹색 상품에 대한 구매운동, 알뜰 가게 등 나누어 쓰기 참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청소년들이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

3)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동 계획

(1) 중앙정부

청소년의 잠재력과 권리를 키우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긴요하다.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환경부, 문화관광부, 교육부를 들 수 있다.

세 부처 가운데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에 환경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예산, 평가, 지원 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환경보전의 주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중앙부처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는 교육을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보전 국민교육과 참여, 홍보 업무를 고유의 임무로 갖고 있다. 이 세 부처간의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 부처들간에 가칭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 지원 협의회'를 만들고 그 주관은 환경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5일 근무와 주5일 교육이 멀지 않아 도입되면,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환경부, 문화관광부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로 환경부는 기존에 추진중인 환경보전 시범학교, 체험환경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를 확대 발전시켜 청소년들 사이의 국제적인 참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래의 동북아 환경협력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둘째, 청소년 정책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권 확보를 위해 이들의 참여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주말농장,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 연계프로그램에 생태, 환경개념을 도입하여

생태문화 체험활동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 자연을 단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에 생태체험 및 환경보전 참여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 환경 동아리 지원제도와 시상제도 도입도 문화관광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셋째, 교육부는 학교교육 속에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 CA활동, 야외학습, 재량학습 등 학교교육에서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수한 참여활동을 지도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포상제도와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각 부처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첫째, 지역사회에 적합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가칭 '지역 청소년 환경보전 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지방의제 21' 전국 협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24].

둘째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네트워을 구성한다. 청소년 참여활동은 지역, 집단별로 흩어져 있어서 효과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 안이나 별도의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네트웍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관계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도록 사이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한다. 사이버 환경의회 같은 것을 구성할 수도 있다. 컴퓨터 네트웍은 실제 체험과는 다른 제약조건이 많으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봉사활동을 환경보전 활동과 긴밀히 연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자를 잘 교육하는

24) 이 사업은 환경부, 행자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참여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들에게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02년에 공단지역에 대한 배출업체 지도단속권이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관리, 도시계획, 환경관리 등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환경과 관련된 주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의 환경보전과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에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파트너십의 모범으로서 지방의제 21은 청소년이 참여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임에 틀림없다.

(3) 학교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의 미래와 복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재량활동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환경동아리 등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그 학교와 지역사회에 맞는 독창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장 등 지도자들은 환경교사, 외부 환경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주도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로 지역사회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환경청 등과 파트너십을 만들어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활동과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연계시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함께 기여하는 경험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재생산은 환경보전을 위한 일꾼을 재생산한다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환경단체는 보다 체계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환경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환경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기업

기업은 지역사회의 학교, 청소년 동아리와의 다양한 참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청소년 환경협의회를 만들고 주기적인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공개 프로그램, 오염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은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보다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Ⅵ.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발전되어 있지도 않고 연구도 부족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Ⅱ장에서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환경문제의 주된 피해자이자 사회발전의 잠재적 파트너이며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환경권과 참여활동의 중요성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정부의 환경교육 및 참여활동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참여활동 사례를 선진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참여활동이 시작된 시기도 늦고, 조직적인 활동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선진외국 사례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의사결정을 변화시켜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성공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장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 참여활동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제8차 환경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 13개 중, 고등학교 학생 1,560명을 대상으로 했다. 청소년들은 조사대상의 68.3%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표명해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환경교육이나 환경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해 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환경권에 대한 의식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환경과목, 사회환경교육, 환경관련 자원봉사 등의 경험을 해 본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Ⅴ장에서는 청소년 환경교육과 참여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높으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활동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교육은 전문가, 인센티브, 네트웍, 예산지원, 평가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환경단체들이 수행하는 사회환경교육도 종합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전문가, 공간, 예산 등 자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2. 정책제언

우리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인 주체인 청소년이 자신들과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해 환경보전활동과 그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첫째 학교 환경교육 부문에서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활동 대폭 확대, 둘째 사회 환경교육을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발전 중심으로 개선, 마지막으로 기업의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원 확대와 같이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대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이 환경과 사회발전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학교,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7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1) 문제 중심의 참여활동
(2) 생태 중심의 참여활동
(3) 생활 중심의 참여활동
(4)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활동

(5) 민주주의 체험의 참여활동
(6) 사이버 참여활동
(7) 소비자 주권 참여활동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했다. 첫째로 중앙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종합대책'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 환경부
· 기존에 추진중인 환경보전 시범학교, 체험환경교육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를 확대 발전시켜 청소년들 사이의 국제적인 참여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도 전문가 육성

(2) 문화관광부
· 주5일 근무제 도입 대비, 주말농장,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 문화 · 체육 · 관광 연계프로그램에 생태, 환경개념 도입하여 생태문화 체험활동이 되도록 유도
· 청소년 수련시설에 생태체험 및 환경보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 환경 동아리 지원제도와 시상제도 도입

(3) 교육부
· 학교교육 속에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
· 자원봉사활동, CA활동, 야외학습, 재량학습 등 학교교육에서 청소년의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참여활동 지도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포상제도와 지원제도 도입

다음으로 각 부처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1) 지역사회에 적합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지역 청소년 환경보전 협의회' 구성 및 지원
(2) '지방의제 21' 전국 협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조직 구성
(3)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네트웍 구성
(4) 사이버 환경보전 참여활동 활성화
(5) 사이버 환경의회 구성
(6)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강화
(7) 사회봉사활동을 환경보전 활동과 연계 강화
(8)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 지도 전문가 양성
(9)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서 청소년 위원회 설립

지역의 환경보전과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에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는 재량활동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환경동아리 등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맞는 독창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역사회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환경청 등과 파트너십을 만들어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활동과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연계시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함께 기여하는 경험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환

경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환경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학교, 청소년 동아리와의 다양한 참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청소년 환경협의회를 만들고 주기적인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공개 프로그램, 오염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은 그 역사가 짧고 경험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환경교육과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많은 반면, 이 두 영역 사이의 접점에 위치한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에 대한 개념과 연구, 정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이 연구는 개념, 현황 등을 탐색하고 향후 정책방안의 윤곽을 그리는 데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는다.

청소년 환경보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로 모범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환경전문가, 환경운동단체 활동가, 교육 공무원, 환경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런 연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환경보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관료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 가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토우 히사타케. 1998. 한귀현 역. 2001. 「환경윤리」. 동남기획.

강희선. 1993. 「청소년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 전공 석사.

구도완. 1996. 「한국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구도완. 2000.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특성」.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10권 1호. pp. 363-382.

구승회 역. 2001.「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김남일, 김왕근, 노경주, 이면우, 이대형, 추병완 역. 2000.「인간・환경・교육」. 하우.

김승한 역. 1972.「인류의 위기」. 삼성미술문화재단.

김재범, 지재성, 문국현 역. 1997.「녹색공동체를 위한 실천」. 나남출판.

남상준 외 역. 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원미사.

녹색소비자연대. 1999. 「환경・정보・문화시대에서의 청소년 녹색소비」. 녹색소비자 연대.

대니서. 1999. 「행동하는 세대」. 문학사상사.

대니서. 2000. 「작은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문학사상사.

대한YMCA. 1993. 「전국 YMCA가 함께 전개하는 환경보전생활실천지침-환경. 우리들의 제안」. 대한YMCA.

대한민국. 1996.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국가실천계획.

바이츠제커. 1999. 이필렬 역. 「지구환경정치학」. 아르케.

박이문. 1998.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박태윤, 최돈형, 박현주, 노경임. 2001.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평가」. 환경부・한국교원대학교.

박태윤 외. 2001 「환경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박혜숙, 박종관 옮김. 1995. 「지구환경문제란 무엇인가」. 따님.
성민순. 2000. 「가정교사의 환경의식과 환경교육 수행」.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박사.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조형준, 홍성태 역. 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손춘석 역. 1998. 「세계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결의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모스 H, 홀리 저, 홍동식 외 옮김. 1995. 「인간생태학-지역공동체이론」. 일지사.
양혜숙. 2001. 「제주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환경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수준 측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물교육전공 석사.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8. 「유엔바로알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5.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아동권리협약.
유지산. 1999. 「중학생의 환경의식과 실천간의 비교연구 - 환경교과 선택여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환경교육전공 석사.
이상대. 1998. 「중학교 환경교육에서 교과와 특별활동의 효과 : 서울시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시재. 2000. 「사회 환경교육의 발전 방안」. 최석진 외. 「환경교육 혁신 방안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pp. 84-104.
장인영. 1999. 「환경교육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 민간환경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정회욱. 길은배. 김정래. 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요섭 옮김. 2001.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차정은. 2000. 「청소년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박사.
최돈형 외. 1991.「초ㆍ중등학생 및 교사의 환경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최석진 외 22인 공저. 2002. 「21세기 한국의 환경교육」. 교육과학사.

최석진 외. 1997. 「환경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석진, 최경희, 이선경. 2002. 「민간환경교육 단체·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한국환경교육학회.

최열. 2002. 「지구촌 환경이야기」. 청년사.

최용진. 1997. 「헌법상 환경권의 보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박사학위논문.

최종범·김기순. 1994. 「자연환경과 국제법」. 범양사.

캐서린아이작 저. 1992. 조희연 옮김. 2002. 「우리는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로 간다」. 아르케.

하일브로너(Heilbroner), Robert L. 1988.「*An Inquiry into the Human Prospect*」. 허영식 역. 「인간에게 미래는 있는가」. 문예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환경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환경교육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귀현 역. 2001. 「환경윤리」. 동남기획.

한면희. 2001. "새만금 갯벌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미래세대 환경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녹색연합. 2001.8.25.

한상진. 1988.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

한연희. 2000. 「청소년소비자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 안동시를 중심으로- 」.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박사.

함병수, 김경준, 김정주, 김영지. 2001. 「정주5일제근무(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정책 방향과 대책」. 문화관광부·청소년개발원.

환경부. 2000a. 「새천년 국가환경비전과 추진전략」. 환경부.

환경부. 2000b. 「환경백서 2000」. 환경부.

환경부. 2000. 「21세기 국민환경의식조사」.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

환경부. 2000.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환경부.

환경부. 2001. 「제8차 환경보전시범학교(중학교)」. 환경부.

환경부. 2001.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사례개발」. 환경부.

환경부. 2002. 「전국 체험환경 학습장안내」. 환경부.

환경부. 2002.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체험환경교육 지도서. 환경부.

환경부 · 국립환경연구원. 2001. 「환경교육훈련종합평가서 2000년도」.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Athman. J. A. & Monroe. M. 2002. 「Element of effectiv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Recreational Boating Fishing Foundation.

Carson. Rachel. 1962. *Silent Spring.* 이길상 역. 1990. 「침묵의 봄」. 탐구당.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hip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UNICEF.

Khosla. A. 2001. 「The roar from Rio to Johannesburg. The 4th Millenium Papers Issue 5:」. UNED.

Meadows. Donnela H. et al. 1972. 「*Limits to Growth*」.

Rosenbaum. M. 1993.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National Children's Bureau of」. UK.

Satterthwaite et. al. 1996. 「The environment for children」. UNICEF.

Siemer. W. F. 2002. Best practice for curriculum. teaching. and evaluation components of aquatic stewardship education. Recreational Boating Fishing Foundation.

UNICEF. 2001. The state of the world's participation.

Vos. K. E. 2002. Recommended educational practices for youth environmental education from a 4-H youth development perspective. Recreational Boating Fishing Foundation.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조형준/홍성태 역. 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부록 1> 설문지

청소년 환경의식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청소년의 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환경권 관련 의식 및 생활실태를 이해하고 청소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참여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은 환경정책은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값진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보전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우)137-715
담당 : 김정주 · 임지연 · 성기원
(Tel: 2188-8842, 8859, 8847, Fax: 2188-8869)

환경문제에 대한 귀하의 인식과 태도 및 실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약간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2.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환경관련 주요 의견	매우 공감	다소 공감	별로 공감 안함	전혀 공감 안함
1.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더라도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④	③	②	①
2.환경문제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④	③	②	①
3.환경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④	③	②	①
4.환경오염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④	③	②	①
5.문화적 혜택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④	③	②	①
6.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④	③	②	①
7.21세기에는 환경문제 해결능력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분될 것이다.	④	③	②	①
8.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④	③	②	①
9.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상품(비닐포장보다는 종이포장 등)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	④	③	②	①
10.나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원금 때문이라면 환경관련 세금을 좀더 부담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문제	매우 심각	대체로 심 각	대체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대기오염	④	③	②	①
2. 수질오염(지하수 오염 포함)	④	③	②	①
3. (농약 등에 의한) 토양 오염	④	③	②	①
4. 소음 · 진동	④	③	②	①
5. 악취	④	③	②	①
6.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④	③	②	①
7. 생활 쓰레기 처리	④	③	②	①
8. 산업폐기물 및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	④	③	②	①
9. 해양오염	④	③	②	①
10.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④	③	②	①
11. 식품오염(환경호르몬 등)	④	③	②	①
12. 환경문제 전반	④	③	②	①

4. 평소 다음과 같은 환경보전 활동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 활동	적극 실천	대체로 실천	대체로 실천 안함	전혀 실천 안함
1. 일회용품 안쓰기	④	③	②	①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④	③	②	①
3. 재활용품 사용 및 자원 재활용	④	③	②	①
4. 세탁, 설거지, 목욕시 저공해 세제 이용	④	③	②	①
5. 수돗물 아껴쓰기	④	③	②	①
6. 승용차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④	③	②	①
7. 자연환경 훼손 방지	④	③	②	①

다음은 환경교육 및 환경운동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5. 최근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육	7회 이상	4-6 회	1-3 회	전혀 없다
1.환경 교과목 이수(환경, 환경과학, 생태와 환경 등)	④	③	②	①
2.학교 수업시간에 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수업	④	③	②	①
3.환경문제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가의 특별강의	④	③	②	①
4.동아리활동이나 CA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참여	④	③	②	①
5.수련활동이나 단체활동 시간에 환경보전 활동 참여	④	③	②	①
6.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 활동 참여	④	③	②	①
7. 기타(구체적으로)	④	③	②	①

6. 최근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단, 여기서 환경관련 교육에는 방송, 언론 등 공공매체를 통한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사회에서의 환경관련 교육	7회 이상	4-6회	1-3회	전혀
1. 환경단체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	④	③	②	①
2.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참여시 부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활동	④	③	②	①
3.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 활동 참여	④	③	②	①
4. 복지관, 구민회관 등 지역사회의 기관 등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	④	③	②	①
5. 환경운동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④	③	②	①
6.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보전 활동 참여	④	③	②	①
7.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	④	③	②	①
8. TV 매체 등을 통한 간접교육 (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 등)	④	③	②	①
9. 기타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	④	③	②	①

다음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래세대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8세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현재 성인들이 결정하는 자원개발과 환경문제에 의해서 미래사회에 생활하면서 영향을 받게되는 세대를 말합니다.

7. 「청소년과 환경문제」에 관한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청소년과 환경문제」 관련 주요 의견	매우 공감	다소 공감	별로 공감 안함	전혀 공감 안함
1.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은 청소년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④	③	②	①
2.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소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④	③	②	①
3.현재 성인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앞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④	③	②	①
4.성인들이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③	②	①
5.청소년은 지구상의 자연자원(석유, 숲, 지하자원, 토지 등)을 미래세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③	②	①
6.청소년 시기에 환경보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된다.	④	③	②	①
7.청소년들도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④	③	②	①
8.청소년들도 현재의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③	②	①
9.청소년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④	③	②	①

8.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매우 찬성	대체로 공감	대체로 공감안함	전혀 공감 안함
1.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부족	④	③	②	①
2. 사회에서 환경교육이 부족	④	③	②	①
3. 대학입시제도에 환경과목이 없기 때문	④	③	②	①
4.청소년지도자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흡	④	③	②	①
5.청소년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청소년 권리에 대한 무관심	④	③	②	①
6. 가정에서 환경교육이 제대로 없기 때문	④	③	②	①
7.자연환경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정책 때문	④	③	②	①
8.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	④	③	②	①
9.성인들의 문란한 개발 때문(경치 좋은 곳에 무조건 골프장, 호텔 건설 등)	④	③	②	①
10.산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	④	③	②	①
11.환경을 지키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개발을 우선시 하는 사회풍토 때문	④	③	②	①
12.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환경 전문가가 없기 때문	④	③	②	①
13.환경운동 단체들의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	④	③	②	①
14.환경교육 관련 방송, 영화, 서적 등 환경내용의 문화매체가 없기 때문	④	③	②	①
15.부모가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④	③	②	①
16.학교교사들이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	④	③	②	①
17.청소년들이 미래세대 환경권에 대한 교육 받은적이 없기 때문	④	③	②	①
18.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	④	③	②	①
19.청소년이 환경적 약자이기 때문	④	③	②	①
20.청소년에게 적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	④	③	②	①

9.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	매우 공감	대체로 공 감	대체로 공감안 함	전혀 공감 안함
1.환경운동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④	③	②	①
2.청소년들로 구성된 환경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	④	③	②	①
3.사회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환경 프로그램 참여	④	③	②	①
4.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④	③	②	①
5.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④	③	②	①
6.일상생활에서 자원절약 습관 익히기	④	③	②	①
8.환경오염 및 훼손 현장 발견시 신고하기	④	③	②	①
9. 사이버 상의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④	③	②	①
10.환경보전 관련한 봉사활동 참여하기	④	③	②	①
11.환경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④	③	②	①
12.또래집단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활동	④	③	②	①
13.환경친화적 물품 구입하기	④	③	②	①
14.환경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는 기업의 상품 구매하기	④	③	②	①
15.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참여하기	④	③	②	①
16.등하교시 자동차 이용을 되도록 줄이고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	④	③	②	①
17.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	④	③	②	①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10. 성(性)은? ① 남자 ② 여자

11. 소속 학교 및 학년은?
   1) 중학교......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 인문계 고등학교.......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실업계 고등학교.......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12. 다니고 있는 학교는?
   ① 남자학교 ② 여자학교 ③ 남녀공학

13. 거주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 오랜 시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심층면접 자료

1. 청소년들의 환경활동 경험에 대한 소감

1)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활동소감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동아리활동” 면접조사(2002. 7-10)는 언론, 인터넷 등 자료에서 활동사례를 수집하여 전화, E-mail, 직접면담 등의 방법으로 활동 청소년 및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이다.

자생적 환경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주요 환경활동으로 모피착용반대운동, 청소년녹색소비운동,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 중심의 캠페인 활동, 환경활동토론, 환경문제 실태조사, 견학, 체험 성명서발표, 환경 홈페이지운영, 소식지발행, 환경퍼포먼스, 사이버환경기자단활동 등의 환경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대부분 2000년 이후에 활동이 시작되면서 활동성과보다는 활동과정에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환경에 지역사회 환경단체나 타 단체와 교류 및 환경활동에 대한 연계활동을 통하여 환경교육, 환경정보, 환경활동 지도자의 지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학교 환경반 학생들보다 다양한 환경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권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구체적 인식과 실천방법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미래세대 환경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청소년들 스스로 정보를 찾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환경권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청소년포럼,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명서 발표, 퍼포먼스 등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도 있었으나, 청소년 환경동아리들이 서로 교류활동이 부족한 것을 아쉬움으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환경동아리활동과 주요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인터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① ‘스워퍼’ 환경동아리 청소년의 활동소감

“환경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국제환경청소년친선 회의에 참석하게되면서 국내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동물학대 방지 캠페인 등 환경활동을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성취감이라든가 자신이 학교공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 여러 사람과 접하면서 세계환경회의참석으로 내가 성숙해졌음을 느끼고 환경에 대한 열정과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의식이 커졌다. 국제청소년환경친선에 참석하여 느낀 것은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로 월드컵에서 한국이미지가 커졌지만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수준은 너무도 낮은 것 같다. 따라서 청소년환경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지만 환경에 대한 홍보・정보가 부족하고 알아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식의 추상적으로 알고 구체적인 환경실천방법은 모른다.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흥미없이 옛날 방식으로 식상한 정보제공만 주는 것도 문제이다”(고 3년)

청소년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실천방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푸른소리’ 환경동아리 청소년의 활동소감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들만큼 완벽하게 환경참여활동을 할 수 없어 여러모로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의욕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관련활동을 해오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늘고 사회적 환경문제에 참여해 해결책을 강구해 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확은 내가 하는 일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이다. 단순히 환경보존을 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나 사회와 미래에 좋은 일이라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 2년)

“생활 속의 작은 환경문제에서부터 사회의 큰 환경이슈를 가지고 캠페인, 성명서발표, 작은 토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작은 동물들의 생명권 존중 및 인간의 사치

심을 물리치기(?)위해 모피반대캠페인과 새만금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입장들을 밝히는 성명서발표와 작은 퍼포먼스, 타 청소년환경단체와의 미래환경권에 대한 토론,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공부,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캠페인, 분리수거캠페인, 한강의 물줄기를 찾아가는 체험학습, 도시 속 환경공원체험 등 다양한 체험, 토론, 공부를 통해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보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3년)

환경활동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미래세대 환경권 학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 토론활동을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는 환경단체의 지도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우연히 환경단체 소식지에서 청소년환경동아리활동에 대해 알게되었어. 평소에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혹시 환경운동이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해서 환경활동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환경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함으로써 사회경험을 하게 된 것이야....따라서 환경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환경이나 환경운동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말고도 학교이외의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환경운동이 전부시위나 농성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환경운동이란 캠페인이나 직접적인 정화활동 뿐만이 아니고, 자기자신이 생활하면서 자연과 나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이 행동에 묻어날 때 그런 모든 행동이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해. 그런걸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환경운동가일테고...
내가 환경활동하면서 깨달은 점인데, 매일 집이랑 학교에서만 그럭저럭 잘 지낸다고 사회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 사회에 나가서는 다만 나약한 존재가 될 뿐이야. 환경동아리 친구들끼리 단결을 통해서 힘든 사회활동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길렀으면 해."(자퇴 고교생)

학교를 자퇴한 후 환경활동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즉 환경운동을 하는 것에 보람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코틴’ 환경동아리 청소년의 활동소감

“청소년의 힘으로 환경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경험을 길러주는 것 같다. 처음 동아리시작은 봉사활동 점수 때문이었고, 많은 자원봉사기관 중 가장 봉사내용이 달라서 인상적이어서 시작하게 되었다.”(중 1)

“재미있고 몸으로 직접적으로 활동해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흥미롭다”
“학교게시판에서 소개글을 보고 동아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개개인의 활동아 아니라서 또래들이나 언니, 오빠들과 만날 수 있어 더 흥미롭다. 아직은 그냥 기대감 반 불안감 반이다. 아직 활동이라는 것을 많이 못해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중1)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서 환경동아리 활동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했던 활동으로 보아서는 괜찮은 활동인 거 같고, 학교수업보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학교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 시작했다. 학교봉사활동시간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1)

"청소년환경동아리 활동은 생각보다는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주변의 환경을 위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자원봉사신청을 하는데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봉사활동 시간도 채울 겸 시작하게 되었다."(중1)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로 동아리구성원들끼리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동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A구청에 왔다가 'B'이라는 단체를 소개받고 시작하게 되었다."(고1)

처음엔 학교 봉사활동 때문에 환경활동을 참여하게 되었지만 환경활동이 좋은 일을 하는 활동인 것 같고 열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어떤 활동인지 알고싶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 수 있다.

④ 청소년환경동아리 '아이지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내용인용

"지난해 새만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고 2001년엔 미래세대 환경권을 주제로 이야기마당을 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처분취소 소송에 내었던 소장을 통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미래세대 환경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 또는 미래세대 환경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자세히 알 수 있다. 또 어떤 근거로 인해 새만금 간척사업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게 되었다"

"필리핀 소송사례는 미래세대 환경권을 주축으로 승소했던 사례이다. 이 자료를 자세히 공부하면...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 환경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떤 스타일로 나가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동아리는 환경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환경단체 내 소모임이야. 꽤 오랫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후 태어났어. 우리 동아리는 환경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하나뿐인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고 배

우는데 목적이 있고 모둠별로 활동해. 월 동아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더욱 드높였고, 동시에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어냈으며,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이바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청소년들만 있고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랑 만나서 좋은 일 하는 그런 기분이야. 자유스럽고 자신의 생각도 그때그때 말할 수 있어 참 괜찮은 동아리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동아리 회의는 남은 2002년 활동계획, 미래세대 토론회에 대해서, 다른 청소년 시민단체와의 연대문제이다"

"...현세대는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권리가 그다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미래세대의 환경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미래세대 환경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신성한 법임을 알았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 모두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질문이나 새만금과 미래세대 환경권에 가졌던 생각들을 질문하자...

"새로운 사실을 안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꼭 알려주고 환경을 생각할 때 새만금을 한번 더, 미래세대를 한번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미래세대 환경권, 필리핀 미래세대의 소송,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세대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지 새만금 싸움은 어찌해야 하는지 이야기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의 글을 통해서 환경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참여의사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인 활동인증 방안과 더불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문적인 사회환경단체의 활동가와 지식, 정보 등의 도움을 받고 연계하여 환경권에 대한 정보, 학습을 청소년들 스스로 토론회를 개최, 서명운동 등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었다. 성인이 개최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체하고 성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스스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갯벌 중단을 요구하는 미래세대 소송에 참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청소년단체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미래세대 환경권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도 기존에 기초적인 환경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올바른 환경교육의 장이 시급히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학교 환경반 활동소감

"학교 환경동아리활동" 면접조사(2002. 8-11)는 전국 대상으로 지역별로 15개 지역의 고교에 무작위 추출로 전화한 뒤 "환경활동반이 있는 학교"와 "학교 환경반과 연계활동을 하는 환경단체"와 "환경을 사랑하는 교사모임(이하 환생교)"과 연계 활동하는 학교 환경반을 대상으로 학생면접, 교사면접,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전화 및 이메일 면접을 한 것이다.

학교 환경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환경활동을 주로 폐휴지 재활용, 휴지줍기나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활동지원방안으로 청소도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환경권에 대한 인식을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상식적 인식은 있으나 구체적 인식과 실천방법에 관한 의식은 부족하여, 환경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하여 정보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환경활동을 교내외 휴지줍기, 청소하기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청소년이 말하고 있는 봉사성격의 환경정화활동이 전부인양 환경활동에 관한 그 이상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환경단체나 타 단체와 교류 및 환경활동에 대한 연계활동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휴지줍기 외에 환경문제 조사, 토론, 견학, 탐험 등 다양한 환경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담당 교사의 역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환경동아리활동과 주요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인터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① A고교 ‘환경체험활동반’ 청소년의 활동소감 면접내용

“환경활동이란 것이 몸을 쓰는 일이 많아 피곤하다. 장비가 안 좋아서 더러운 것을 손으로 만질 때가 있다”...

“환경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쓰레기가 너무 많고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힘들었지만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환경체험을 하는 것이 아닌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엉뚱한 동아리’이다”

“말로는 환경보호를 외치지만 몸이 말처럼 움직이지 않아 환경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환경체험활동반이라고 해서 힘들게 우리주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다”

“환경체험활동반은 우리주위의 환경을 알아보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활동이다”

“환경활동으로 가까운 곳부터 청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에선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도록 많이 지원해주고, 작업도구를 많이 지원해 줘야한다”

학교 환경활동반 청소년들이 환경활동을 청소·휴지줍기 등의 환경미화활동이나 환경정화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체험을 하고 싶어 환경반에 가입한 청소년이 엉뚱한 활동만 하는 동아리라고 활동소감을 표현한 것을 통하여 환경활동이 왜곡되어 진행되는 있는 학교의 현주소를 알 수 가 있다.

② B고교 ‘환경봉사단’ 청소년의 활동소감 면접내용

“나는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유리와 거울을 닦는 것을 시작으로 교내 환경정리와 학교 근처의 환경미화활동을 하고 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지금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
“환경봉사단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치워도 다시 그자리라는 것이다”
“환경활동 참여과정상의 어려움은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청소 도구가 부족한 것이다”

청소도구를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활동소감을 통해 밝히고 있다. 환경활동을 통하여 환경문제해결에 다가가고 싶지만 청소도구만 주로 지원해주는 학교에서 활동의 보람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고교 ‘환경활동반’ 청소년의 활동소감 면접내용

“자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남겨주고 싶었고 그런 맘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 환경 동아리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므로 환경활동을 해도 자랑스러움이라던가 만족감이 생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지식습득과 환경보호의 실천이 아니라 오직 수능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연계활동을 통하여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기르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정부에서 환경교육이나 환경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없어서 자랑스러운 만족감이 없고 오직 수능만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환경담당 교사에만 의존하게 되는 활동 시스템이 더욱 문제이지만, 교사의 의지와 환경인식에 따라서 환경활동의 주요내용이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 학교는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연계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환경인식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환경반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소감을 들어보면, 환경문제, 환경활동을 청소, 분리수거, 휴지줍기, 재활용품사용 등을 중심으로 편협되고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왜곡된 환경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환경반이 인기가 없고 어쩔 수없이 참여하게 된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학교, 사회, 가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3) 교사들의 학교 환경반 활동소감

전국적 학교 환경담당교사 8명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 환경을 사랑하는 교사모임 활동가 10여명을 중심으로 면접한 내용을 인용하고 정리한 것이다.

① D고교 환경반 담당교사의 활동소감 면접내용

"무엇보다 환경반 담당교사의 인식 중요하다. 학교마다 담당교사가 어떤 활동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활동내용이 달라진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환경반하면 분리수거하고 청소라고 지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문제이다. 환경활동은 자연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활동이 되어야한다. 지도할 수 있는 환경교사를 지원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 환경부 체험학습프로그램(1년 단위)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 생태활동체험 철새 꽃체험 등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얽매이기 싫어서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 지원이 아니라서 1회적 행사로 생각된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의 환경반은 휴지줍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환경미화, 청소 등을 하고 있다. 환경반에 지원한 학생부터가 환경의식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할 수없이 환경반에 온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담당 지도교사 환경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환경자료실, 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활동을 돕고 있다."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 환경반하면 재활용, 분리수거, 청소 등 지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환경활동의 대부분을 담당교사의 환경인식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환경담당 교사를 지원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② G 환경단체 활동가의 학교 환경반 연계활동소감 면접내용

“담당교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담당교사가 환경연합에 프로그램을 의뢰하여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중학교 전일제 활동 CA 36시간 중에 개별적 프로그램내용은 야생화체험, 갯벌체험, 겨울철새탐사 일반적으로 환경체험교육 꽃 갯벌 철새 기본적으로 계절별로 이루어진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탐사 프로그램을 연계활동으로 학교 CA 활동으로 하니까 전일제로 토요일 하루종일 실시하여 한달 두 달만에 하니까 지속성이 없어 진행이 어려웠다. 학교일정과 맞지 않는다
환경연합프로그램 방문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가들의 설명듣기도 한다. 생태교육과 프로그램에 환경탐사반이 와서 환경교육을 받는다. 학교의 전일제 CA(토 수업 없이 온다) 환경반이 환경운동연합이랑 연계활동을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해도 환경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기는 힘들다.“

환경단체에서 학교 CA반 전일제 활동으로 연계활동을 함에 있어서 한달 두 달만에 한번씩 실시하게 됨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가 있다. 학교의 연계활동 신청에 응하기 어려운 것은 활동 지속성 뿐 아니라 단체 담당 지도자와 예산의 부족 때문으로 말하고 있다.

③ E고교 환경반 담당교사의 활동소감 면접내용

“학교 환경활동의 성패는 환경반 담당교사가 어떤 생각으로 운영하시는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개별적으로 환경에 관심있는 교사,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환생교)활동, 환경단체 연계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환경반 활동을 쓰레기분리수거, 청소로 환경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는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환경반 활동으로

휴지줍기나 청소, 분리수거, 환경미화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학교에서 환경에 관한 얘기가 심각함을 느끼는 만큼 다양한 실천활동 하고있지 않다.
그 이유는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활동인식이 부족해서 환경활동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둘째, 학교 환경반이 인기가 없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환경반은 화단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청소하는 부로 생각함으로 인기가 없다.
생태기행을 가거나 소비생활을 줄이는 일,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생활습관 바꾸고 사회구조적 문제 등을 알려주면 좋아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없고 환경반 모임을 위한 환경담당 교사를 교육하는 기회로서 환경교육연수가 필요하다
선생님의 가치관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 필요하다.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한다.
환경교육프로그램 부족, 학교수업 중에 환경교육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권리 인권 환경 청소년 권리를 인정하는 풍토이지만 우리는 청소년은 열심히 공부해야하는 대상으로 해서 환경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활동이다.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환생교"에서는 '환경반 클럽활동 자료집'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학교 환경활동을 돕고 있다."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인식이 부족해서 환경반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인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환경활동의 가장 큰 성패는 담당교사가 어떤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이다.

④ F중학교 환경탐구반 담당교사의 활동소감

"학생들이 야외활동에 익숙하지 않다. 집에서도 과잉보호해서 학원만 가니까 교실이나 실내 활동에 익숙해서 혼자서 활동장소를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한다. 학생들이 내용적 체계적 환경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현재 그런 교육을 하기도 힘들어서 연속적이

지 못한 일회적인 체험활동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돈을 내더라도 제대로 좋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한다.”

중학생들의 학교환경반 활동반응을 살펴보면 야외활동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교실에서 소극적으로 편하게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모임을 이끌기에는 고등학생과 달리 아직 어린 것 같아서 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교사가 다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이다.

“중학교 단계에서 더욱이 성인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중학생은 더욱이 교사가 다 알아서 해야하니까 어렵고 초등학교 때 환경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중학교에서는 동아리형식으로 매년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걸스카웃 같은 동아리처럼 연계활동으로 되지 못해 아쉽다. 이벤트성으로 CA시간에 갯벌체험 등 행사위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와 내년에 대한 비교 연속활동 부족하다. 학교 실정을 보면, 교사의 취향에 따라 CA활동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개설하는 경우 고등학교는 스스로 알아서 선배가 후배 가르치며 하는데 중학교는 매년 새로 조직하니까 CA활동반 학생들도 다른 CA활동반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는 처음부터 선호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없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활동에 소극적이 된다.”

중학교에서 더욱이 고등학교처럼 스스로 선후배가 도와주는 환경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요즘 전일제 활동 환경체험위주로 활동한다. 1년 CA 활동의 실비를 관련 전문단체에 내고 연계활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3만원 낸다. 환경운동연합에 낸다. 돈을 내더라도 제대로 좋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한다. NGO 단체이니까 1년에 활동 실비 3-4만원에 봉사해주지 다른 전문단체에서는 해주지 않는다. 즐거운 학교, 체험학교 도우미 등에서는 활동비가 1회에 3만원 정도라서 학생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다.
연계활동은 돈이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주저된다. 게다가 10명 정도의 소규모 학생들은 교사 1인이 인솔할 수 있지만 30-40명의 규모인 경우는 교사 혼자 인솔 못해 야회활동시 외부에 30-40명은 맡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CA전일제 활동을 지역사회 체험활동 사회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싶어도 참가활동비를 학생들에게 걷어야 함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체험활동 인솔에 있어서도 담당교사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위에서 환경반이 있는 학교를 많이 못 보았다. 별로 인기가 없는지 환경반을 개설하려는 의지도 많이 않은 것 같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반을 많이 개설하는데 환경에 대한 의식 없으면 인기없는 활동반이 된다.
학교 CA활동반은 매년 프로그램과 교사, 활동반 이름, 활동했던 학생들까지 바뀌니까 지속적인 관심이나 요구도 가지기 어렵다.
환경부 등에서 지원해주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해주고 양식에 따라 보고서 내라고 해서 귀찮은 생각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여러 학교 환경반 교사들이 몇 학교 모여서 같은 프로그램을 짜서 공동구매하면서 환경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좋은 것 같다.“

CA 환경반 활동이 동아리 형태로 선, 후배가 있어서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해마다 새로 모집하고 학생과 교사가 바뀌는 상황이라서 지속성이 부족하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인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학생들도 흥미를 갖지 못하고 참여하고 있어 문제이다.

“CA 활동에 필요한 물품, 강사비용 등을 학년초에 활동예산을 올리면 지원해 주었으

면 한다.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너무 양식과 절차를 어렵게 하지말고 활동 후 영수처리를 하는 식으로 활동 초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질 않고 발표회 비용으로 연말에 쓰게 되는 것보다는 CA 활용비용으로서 각 CA 활동반 마다 학기 초에 활동예산서를 올리면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학교 환경반 활성화를 위해서는 CA 활동반 예산지원을 들고 있다. 학기초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집행시 너무 양식과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G중학교 환경탐구반 담당교사의 활동소감

“활동들 중 공통적인 경험으로 주변 식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쳐다보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활동들마다 주제는 달랐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경험들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활동들을 다양한 환경관련단체들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서, 일부 학생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생각보다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학교환경반 활동반응을 보면, 반복되는 경험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환경 관련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반은 반응이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눈에 뜨이는 지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하는가가 나름대로의 과제이다. 지금은, 내가 아이들과 같이 누리고 싶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교사 자신의 활동소감을 보면 환경활동의 성과가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활동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에게는 개별 학교에서 겪는 장애요인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 나의 경우도 갯벌체험을 갔을 때 학부모의 항의전화로(당시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한동안 교장선생님에게 말을 들어야했다. 물론 활동 전에 가정통신문이 나간 상황이었지만. 가정통신문을 만들고 비용을 신청하고 조달하는 행정적인 일들과 답사를 포함해서 주말을 이용해야하는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큰 장애요인이었다.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연체험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대도시에도 이러한 자연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한다. 또 무엇보다 이런 학습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들과 사회의 환경단체 간사님들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체험학습장을 학교의 교사가 모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길동생태공원이나 난지도 하늘공원 등에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문강사들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으로는 야외 체험활동에서 학부모의 항의전화 등 학부모의 협조부족과 학교의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근교의 자연체험학습장이 필요하며, 청소년 환경활동에 대한 담당교사와 단체 간사, 환경 전문강사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부록3> 미래세대 환경권 관련자료

1.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청소년단체 공동성명서(2001.5)
2. 미래세대소송선고에 대한 정식성명서(2001.7)
3.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선언(1997.11)

1.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청소년단체 성명서(2001.5)

살아 숨쉬는 땅 갯벌의 수많은 생명체들을 무시하고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새만금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나라의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한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방조제 건설에 이제까지 사용되었던 비용이나 앞으로의 간척과 수질 개선에 들어갈 비용은 간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막대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고, 농업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갯벌은 많은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산란하는 귀중한 자원이고,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간 도래지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합니다. 바다의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역할까지 해내는 갯벌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자연환경으로 인식되고 있고, 한번 막은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적 이득이 갯벌의 자그마한 조개들과 철새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있고, 소중한 것인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부각된다는 생물다양성 자원의 가치가 몇 억원에 이르는지, 그것이 이제까지 방조제 건설에 들인 돈보다 더 비싼지 저희 청소년들은 계산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느끼는 것은, 생명이 사는 갯벌을 막아버리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생되지 못할 갯벌을 없애는 것은 저희 세대와 저희의 아이들, 또 그 후의 세대들에게서 갯벌이라는 소중한 자연을 알고, 접할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자원은 현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고 우리 후에 세상에 태어날 미래세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 자산입니다.** 1997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내용 중에도 **'현재세대는 인간행동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은 지구를 미래세대에게 양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장은 작은 이익을 가져다줄지 모르겠지만 자연은 우리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에 언젠가는 분명히 진노할 것이고, 그때 자연의 분노는 저희세대가, 혹은 그 다음의 세대가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눈앞에서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진정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생명파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저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대자연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한 점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존재해온 짧은 시간동안 너무나 많은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자연이 우리 인간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속에 존재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위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저희 세대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철회해 주십시오.**

2001년 5월 27일(일요일)

녹색연합 청소년 소모임 **“아이지엘”** 대구환경연합 청소년환경동아리 **“푸름이”** 목포환경연합 청소년자원봉사단 **“환경지킴이”** 부산환경연합 청소년 모임 **“푸른소리”** 서울환경연합 청소년 모임 **“푸른소리”** 진주환경연합 고등학생회 **“푸름마당”** 충주환경연합 **청소년자원봉사모임** 포항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푸른소리”** 청소년 매거진 **“밥”**

2. 미래세대소송선고에 대한 정식성명서(2001.7)

성 명 서	S T A T E M E N T

새만금 환경지킴이 미래세대 소송 선고에 대한 생명회의・녹색연합・미래세대소송인단의 입장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의 부당성과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의 파괴, 그리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5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취소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를 요구하는 미래세대소송을 제기하였다.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소송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37명의 미래세대와 전국의 미래세대들 175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주장한 최초의 소송이다. 이번 미래세대소송에는 현세대의 개발논리에 맞서 어린아이와 청소년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 현세대들에게 자신들의 환경권을 보장을 요구하고, 국제적인 자연유산인 새만금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권리를 보장을 주장함으로써 현세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아달라는 절실한 요구가 담긴 소송이다. 이 소송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세대들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현세대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2001. 7. 25. 수)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였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7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률에 근거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근대화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률 등에 의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갯벌과 같은 자연자산은 단지 해당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영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깨끗한 환경을 향유할 국민의 환경권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7명 원고에 대해서도 행정소송법, 행정심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않았다는 이유로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원고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현세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미래세대들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세대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들이 그들의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공공의 자산인 생태계와 환경파괴 사업으로부터 가장 커다란 피해를 받는 당사자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소송인단, 녹색연합, 생명회의는 미래세대들의 원고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를 수 없으며, 미래세대의 환경권이 존중될 때까지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2001년 7월 25일

녹색연합・생명회의 미래세대소송인단

3.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1997.11)

제1조 미래세대의 욕구와 관심

현세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욕구와 관심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2조 선택의 자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해 완전하게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3조 인류의 지속과 영속

현세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을 통하여 인류의 지속과 영속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 삶의 본질과 형식은 어떤 형태로도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

제4조 지구상의 생명보전

현세대는 인간행동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은 지구를 미래세대에게 양도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지구를 한시적으로 물려받은 각 세대는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생태계의 해로운 변형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의 진보가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

미래세대가 지구 생태계의 풍요로움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현세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생존조건, 특히 환경의 질과 원상태를 보전해야 한다.

현세대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건강이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지도 모르는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인간 생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을 보전해야 한다.

현세대는 주요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 결과가 미래세대 에게 미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6조 인간 유전체와 생물다양성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여 인간 유전체는 보호받아야 하며 생물다양성은 지켜져야 한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간과 기타 생물 종의 보전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문화다양성과 문화유산

현세대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며 인류의 문화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세대는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정의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이러한 공통의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

제8조 인류 공통의 유산

현세대는 국제법에서 정의된 대로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인류 공통의 유산을 사용 할 수 있다.

제9조 평화

현세대는 그들과 미래세대 모두가 평화, 안전, 국제법의 존중, 인권, 기본적인 자유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세대는 미래세대에게 전쟁의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세대는 미래세대가 휴머니즘의 원칙에 상반되는 모든 형태의 공격과 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무장 분쟁의 해로운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개발과 교육

현세대는 특히 가난을 타파할 목적으로 가능한 자원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과 총체적인 측면에서 미래세대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보편적인 사회경제발전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 정의, 이해, 관용, 평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비차별

현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형태의 차별을 유도하거나 영속시키는 모든 행동과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제12조 실행

국가, 유엔, 기타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개인, 공공기구, 민간기구들은 특히 교육과 훈련, 정보를 통해서 이 선언의 근간에 놓여있는 이상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킬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적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의 충분한 인식과 효과적인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연구책임자

구도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주(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임지연(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최석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재석(환경부)

전성민(유에스코한국위원회)

주선희(환경운동연합)

박병권(경희대 생물학과)

ⓒ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서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우편번호 122-706
전화 380-7777 팩스 380-7722
http://www.kei.re.kr
인쇄 2002년 11월
발행 2002년 11월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89-8464-035-2